



올해도 빛나는 수확 거두고...

개학 년도 '1895년' 뿌리 찾기 달성
동문 힘모아 장학빌딩 신축 마무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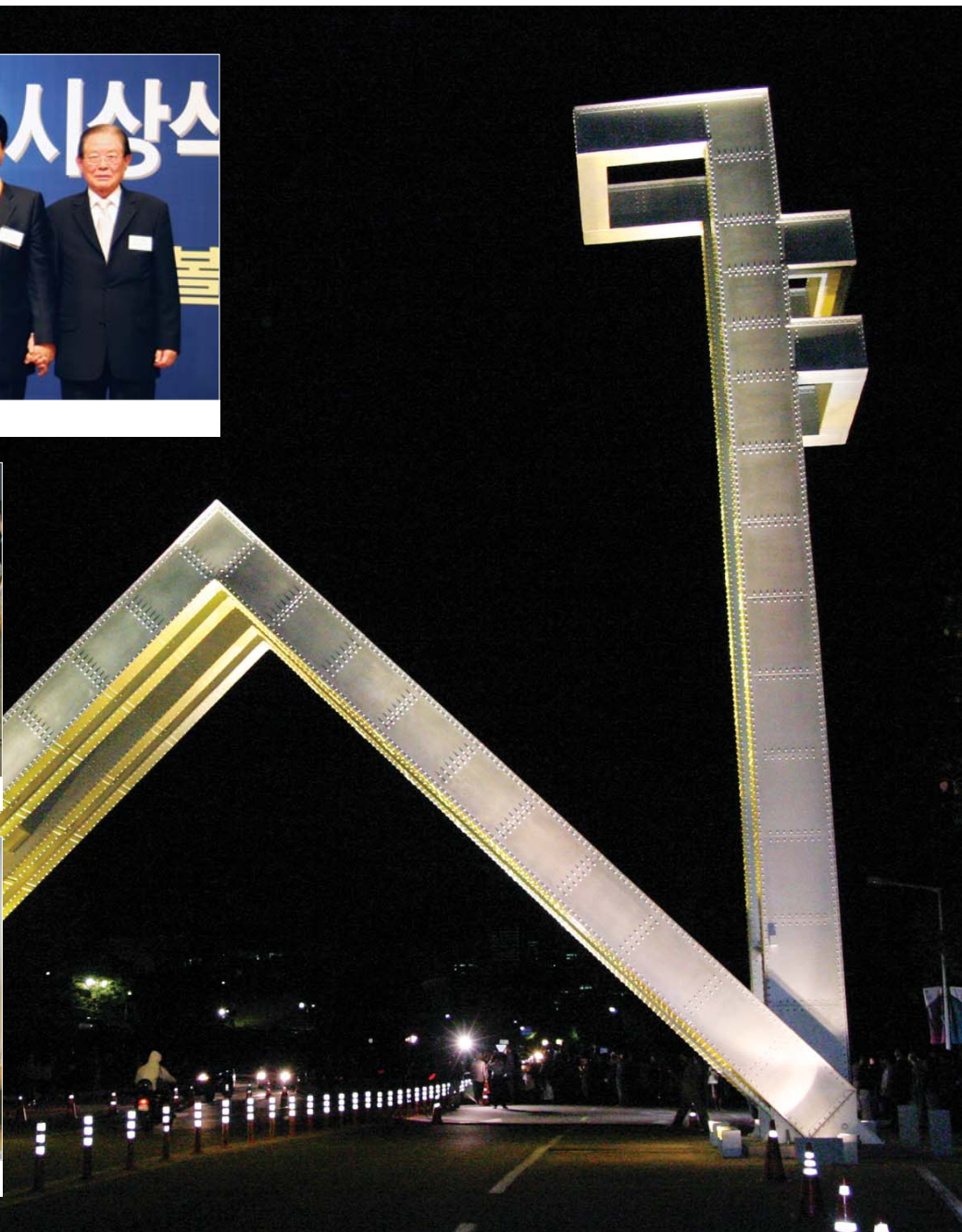
모교와 동창회를 빛낸 분들에게 영예로운 관악대상 시상



모교 개교 원년 조정 연구에 대한 워크숍 개최



글로벌시대의 동량인 후배들에게 장학금 전달



진리를 찾기 위한 열쇠를 상징하는 모교 관악캠퍼스 정문 조형물! 이 해가 저물어 가는 가운데 24시간 깨어있다.

2011년 辛卯年 신년교례회

새해를 준비하는 신년교례회에 동문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일 시 : 2011년 1월 12일(수)
오후 6시
- 장 소 : 롯데호텔 2층 크리스탈볼룸
(서울 중구 소공동 소재)
- 회 비 : 없음
- 문 의 : 02)702-2233

* 한정된 좌석(최대 1000석 한정)과 식사
준비 관계로 2011년 1월 7일(금)까지 꼭 사
전 예약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관악출추

서울대학교총동창회는 2010년에 두 가지
의 과업을 완성했다.

첫째는 장학빌딩(동창회관)의 신축을 마
무리한 일이다. 공식적인
준공일은 내년 봄으로 잡
혀있지만, 서울 마포구 공
덕동 오거리를 지나다니는
시민이면 누구나 서울대학
교 장학빌딩의 높고 산뜻한 새 모습을 바라
볼 수 있다. 지상 19층, 지하 6층에 연면
적 21,272.75㎡로 높이 85.9m에 달하는
장학빌딩은 다른 고층건물들과 함께 하늘
의 윤곽(스카이라인)을 그리고 있다. 총동
창회가 신축계획에 착수해 5년 만에 쾌속
으로 이뤄낸 성과이다.

새 장학빌딩은 매년 커다란 순익을 내리
라고 한다. 이 돈은 모두 재학생 장학금과
교수 연구비로 쓰기로 했으니 그 투자의 학
문적 효과는 매우 클 터이다.

두 번째는 서울대학교 개학 연도가
'1895년'이라는 사실을 확인함으로써 모교
의 뿌리 찾기를 완성한 일이다. 2년 전부

2010년에 확인하는 '겨레의 대학'

터 총동창회는 林光洙회장의 주도아래 '正
統과 正體性-서울대학교 開校 元年, 왜
바로 세워야 하는가'라는 단행본을 출간하
는 등 개교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사업을 시
작했다. 마침내 모교가 총동창회의 제안을
검토해 개교와 개학 연도를 분리하는 절충
안을 채택하고 1895년을 '개학 연도'로 결

정한 것은 지난 10월이다.

역사를 되돌아보면 1895년은 파란만장
한 한해였다. 이 해 5월에 조선정부는
전문교육기관인 법관양성소를 개학했는
데 그 1회 졸업생 중에는 고종의 밀사로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 파견됐던 李 儼
열사도 있다. 이후 법관양성소는 법학교
- 경성전수학교- 경성법
학전문학교를 거쳐 서울
대학교 법과대학으로 이
어진다.

1895년은 왜적이 궁궐에
난입해 명성황후를 시해한 '을미사변'이 일
어나고 전국적인 의병운동이 촉발된 해이
기도 하다. 그러므로 1895년은 단순히 서
울대학교의 개교 원년을 되찾는 한해가 아
니다. '겨레의 대학'으로 거듭나서 민족의
숨결을 계승하라는 임무를 부여하는 한해
이다.
(安炳燦는설위원)

느리나무광장

한국이 빠르게 다문화사회로 변모하고 있다. 한국사회의 경제구조변화와 인구구성변화와 맞물려 결혼이주민들과 외국인 인력의 증가는 점점 자연스런 현상으로 다가오고 있다. 국제결혼을 통한 다문화가정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고 현실적으로 우리사회의 구성원일 수밖에 없고 앞으로는 더욱 그러할 것이다.

이주를 통한 다문화, 다인종 배경을 가진 구성원들의 증가는 순혈적 전통이 강한 한국사회에서 경제적, 사회적 기반이 취약한 이주민들에 대한 차별과 소외의 위험성을 내포할 수 있다. 이러한 시기에 다문화, 다민족 한국사회에 걸맞은 교육정책의 방향을 정하고, 다문화교육프로그램 및 자료를 개발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됐고 이에 교육인적자원부(현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중앙단위의 다문화교육 기반구축을 위해 2007년 서울대학교 내에 ‘중앙다문화교육센터’를 지정했다.

본 센터에서는 현장과 연계된 다문화교육 정책연구, 다문화가정 자녀 및 교사를 위한 교재개발, 다문화교육 담당교원양성 등 다양한 교육과 연구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 올해 말에는 다문화교육 종합정보 사이트(www.da-

munwha-edu.or.kr)도 개설해 정부와 각 시도 교육청, 일선교육현장 간의 의사소통을 위한 공간을 마련했다. 본 센터는 국내의 다문화교육 연구사업뿐만 아니라 내년부터는 유럽의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등의 주요 대학연구기관들과도 컨소시엄체제를 구성해 체계적인 글로벌 차원의 연구도 진행한다.

동문들 가운데에는 오랫동안 해외에서 체류한 분들이 많은 것이라 예상된다. 필자도 미국에서 학위를 마치고 독일대학에서 7년간을 가르치다 귀국했는데 오랜 해외생활에서 외국인으로서 가족과 함께 일상생활에서 겪어야 했던 보이지 않는 장벽과 불편한 경험들이 있다. 필자는

다문화교육과 동문들의 역할

成 祥 煥

(독어교육82-86)

모교 독어교육과 교수

중앙다문화교육센터 소장



한국에서 생활하는 많은 이주민들이 소수자로서 유사한 경험들을 하리라 생각한다.

본 센터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일반 한국민들이 갖고 있는 인종적, 문화적 편견이 심함을 확인할 수 있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다문화가정 출신 아동의 경우 자신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자신의 피부색이라고 답한 아이도 있다. 국제결혼가정출신의 아동들은 일반 한국인아동과 비교했을 때 외견상 피부색이 다를 수도 있고 이를 통해 일반사회의 편견이나 인식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볼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외국에서 살 때 우리 자신이 공정한 대우를 받고자 원했던 것처럼 동일한 마음가짐으로 우리사회의 이주민들과 그 구성원들을 포용하는 것이 다문화교육의 첫걸음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다문화사회에서 중요한 인권존중의 식과도 연결이 된다고 본다.

특히 서울대 동문들은 한국사회를 이끌어 가는 리더의 역할을 많이 담당하는데 우리 동문들이 한국에 와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주민들과 다문화가정을 포용하는 따뜻한 마음을 다양한 방식으로 실천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다. 모교의 중앙다문화교육센터가 한국의 다문화교육의 발전에 더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동문들의 많은 관심과 조언을 기대한다.

관악시단

송년에 즈음하면

柳 岸 津(교육61-65)

모교 소비자 아동학부 명예교수·시인

송년에 즈음하면
도리없이 인생이 느껴질 뿐입니다
지나온 일년이 한생애나 같아지고
울고 웃던 모두가
인생! 한마디로 느낌표일 뿐입니다

송년에 즈음하면
자꾸 작아질 뿐입니다
눈 감기고 귀 닫히고 오그라들고 쪼그라들어
모퉁이길 막돌맹이보다
초라한 본래의 내가 되고 맙니다

송년에 즈음하면
신이 느껴집니다
가장 초라해서 가장 고독한 가슴에는
마지막 낙조같이 출렁이는 감동으로
거룩하신 신의 이름이 절로 덩겨집니다

송년에 즈음하면
갑자기 철이 들어 버립니다
일년치의 나이를 한꺼번에 다 먹어저
말소리는 나직나직 발걸음은 조심조심
저절로 철이 들어 늙을 수밖에 없습니다.

동문칼럼

邊昌九학장.

면식이 없는 학장께 이렇게 편지를 드려 혹시 당황하실까 염려가 됩니다. 지난 8월 인문대학장을 연임하며 서울대는 물론 우리나라 인문학 발전에 노고를 아끼지 않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엔 ‘매일경제신문’에 ‘매경춘추’ 칼럼을 연재했더군요. 한국세익스피어 학회 회장 출신답게 맥베스, 리어왕, 템페스트 등의 작품을 현대적으로 해석해 공감대 많이 갖습니다.

학장께서는 2009년 1학기 미래지도자 인문학과정(IFP: In Futurum Program)을 신설하고, 전임 李泰鎭학장이 앞서 설치한 최고지도자 인문학과정(AFP: Ad Fontes Program)을 계승 발전시켜 경제제일주의, 효율지상주의에 밀려난 인문학 재건에 힘쓰고 있으니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요. 금년

(‘세종실록’ 16년 4월)”

邊학장, 나는 인문학의 바탕은 인본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을 사랑하며 남을 자신같이 여기는 마음이 바로 인본주의가 아니겠습니까?

邊昌九학장.

최근 서울대에선 법인화와 개교 원년 앞당기는 일로 약간 시끄러웠는지요? 대학사회는 본래 다양한 의견을 통해 토론과 논쟁을 하면서 발전, 진화하는 것 같습니다. 문득 2010년 7월 13일자 ‘매일경제신문’의 ‘양보와 소신’이란 邊학장 글, 첫 대목이 떠오릅니다.



李 相 起

(서양사학81-87)

아시아기자협회 창립회장

본보 논설위원

“왕관은 가까이 양도하겠소. 하지만 마음은 내 것이오. 나의 명예며 권력은 당신이 갖아갈 수 있지만 나의 마음만은 당신 마음대로 할 수 없소. 내 마음은 내 것이니까.”(‘리처드 2세’, 4막1장)

무엇보다 법인화 등을 계기로 서울대가 선비정신을 면면히 이어가면서, 세계 최고 학문의 전당으로 인류미래에 기여하길 바랍니다.

邊학장, 내년 봄 학기부터 인문대에 일본언어문화과정을 신설해 매년 10명의 학부생을

세종대왕이 인문대 학장에게

4월 인문대학에서 펴낸 ‘스무살, 인문학을 만나다’에 국어국문학과 金屋奎교수의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한글을 만들었다면’이란 글에 내 얘기가 있더군요.

“세종이 훈민정음을 만든 이유 중 하나는 백성을 위한다는 爲民이었다. (중략) 관청의 여자노비에게는 이전에 주던 7일 동안의 출산휴가를 1백일로 늘리고 출산 1개월 전부터 산모의 복무를 면제해주도록 하였으며(‘세종실록’ 12년 10월) 산모의 남편인 남자자에게도 한 달간의 산후휴가를 주어 산모를 보살피게 하였다.

뽕기로 했는지요? 일본과는 예나 지금이나 속적관계인 것은 변함 없는 듯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름다운 경쟁을 통해 동북아평화와 인류공영에 두 손 맞잡고 나아갈 때가 됐다고 여겨집니다. 먼저 손을 내민 서울대와 邊昌九학장의 지혜와 용기에 경의를 보냅니다. 庚寅年 마무리와 辛卯年 새해설계 잘 하길 바라면서 이만 줄입니다. 훈민정음 반포 564년 10월 25일(음)

* 이 글은 세종대왕이 서울대 인문대학 邊昌九학장에게 보내는 편지형식으로 구성했습니다.

서울大同窓會報

참여 · 협력 · 영광

발행인 林 光 洙
편집인 孫 一 根
인쇄인 朴 薦 壽

•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18-2
(임시주소: 서울시 관악구 낙성대동 산4-2 연구공원 219호)
• 전화 (02)702-2233 팩스 (02)886-2218
• e-메일 snua@paran.com

논설위원 金哲洙, 林炯斗, 金鎮銅, 李炯均, 宋丙洛, 安炳燦, 丘月煥, 宋鎮赫, 金好俊, 洪性萬, 李五峰, 安國正, 李成俊, 朴明珍, 李慶衡, 李元馥, 金鍾勳, 文昌克, 金仁圭, 徐玉植, 高永才, 李元燮, 姜天錫, 嚴基永, 裴仁俊, 朴時龍, 辛京珉, 尹在錫, 鄭世溶, 李東植, 朴聖姬, 曹炳喆, 朴勝俊, 許英燮, 金玄浩, 鄭興寶, 金亨珉, 李東寅, 李啓聖, 金鎮國, 崔英勳, 吳在錫, 李容式, 李先敏, 李相起, 蔡耕玉, 許文明, 金永燮
편집장 安興燮 편집부 기자 金南柱, 邊榮顯, 玄智愛 광고부장 金千鶴

관악회 110차 이사회 장학금 증액·朴英俊감사 연임

재단법인 관악회(이사장 林光洙)는 지난 12월 2일 서울 한국언론진흥재단 19층 석류실에서 제 110차 이사회를 개최했다.

林光洙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장학발딩 건립을 비롯해 동창회의 사업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참여하시고 협조해주심으로써 큰 힘이 돼주신 관악회 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이어

장학발딩 현황과 관련해 “장학발딩이 올해 말 완공 예정이었지만 시중의 임대 사정이 여의치 않아 공기를 조금 늦춰 내년 2월로 미루게 됐다”고 보고했다.

관악회는 이날 회의에서 예산안을 심의하고 장학금을 올해 보다 3억원 증액해 8억원을 지원하기로 의결했다. 또 임원개선을 통해 朴英俊감사를 재선임하고 장학발딩



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관악회 임직원의 증원을 교육청에 요청하기로 했다.

이날 모임에는 林光洙이사장, 洪性大상임이사, 孫一根·李禮植·

申明珪·權永昊·安聖哲·李炯均·朴明潤·金秉順이사, 朴英俊·金一燮감사 등이 참석했으며 金炯珠·李吉女·曹基浩·張慶作이사는 위임장을 제출했다.

장학발딩 건립기금 1천만원 이상 출연

지난 11월 12일 법대동창회 金慶漢(법학62-66 KH법률연구소 변호사)회장이 장학발딩 기금으로 1천만원을 출연했으며, 17일 제일엔지니어링 崔鎮澤(토목공학63-65)회장이 1천만원을 보내왔다.

한편 25일 문화시민운동중앙협의회 李秀洪(정치49-59)회장이 부인 黃英金(성악50입)동문과 공동명의로 1천5백만원을 쾌척했다.

기독교동문회

朴興日회장 선출



기독교동문회(회장 李大公)는 지난 11월 15일 모교 관악캠퍼스 엔지니어하우스에서 제53회 정기총회를 열고 한국기독교직장선교연합회 朴興日(영어교육60-64)이사장(사진)을 회장으로 선출했다.

신임 차회장은 과학기술부 1급 관리관(차관보)으로 공직을 퇴임한 후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상근부회장을 역임했다. 현재 직장선교 창립 30주년 사업 추진대회장과 호서대 초빙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사회학과동문회

張太平회장 선임

사회학과동문회(회장 張錫準)

는 지난 11월 24일 서울 을지로 스칸디나비아클럽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 회장에 張太平(사회70



-77)前농림수산식품부 장관(사진)을 선출했다.

이날 모임에는 세계평화포럼 金鎮炫이사장, 李敬在국회의원, 金德龍대통령 국민통합특보관을 비롯해 본보 丁月煥·金好俊·李慶衡 논설위원 등 50여 명의 동문이 참석했다.

관악회 여기자모임

초대 申然琇회장

관악언론인회(회장 文昌克)는 지난 11월 3일 한국언론진흥재단 19층 매화홀에서 50여 명의 동문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회 여기자모임을 개최했다.

이날 여기자 모임 활성화를 위

해 초대 회장으로 동아일보 申然琇(심리83-89)산업부장(사진)을 선출했다. 또 모교 朴明珍부총장



을 멘토로, 한국경제신문 朴聖姬 수석논설위원을 고문으로 추대했다. 각 언론사 간사는 선임 기자들이 맡아 봉사하기로 했다.

申然琇회장은 “우리가 모여 뭘 한다기보다 이렇게 만나는 것 자체가 기쁜 일인 것 같다”며 “같은 직장, 같은 분야에 있으면서 동문이라는 사실조차 모르고 지내온 경우가 많은데 이런 기회에 인사도 하고 더 나아가 고민을 나눌 수 있는 관계로 발전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를 격려하기 위해 본회 林光洙회장, 孫一根상임부회장, 洪性大부회장, 관악언론인회 文昌克회장, 金鎮國부간사장 등이 참석했다. (南)

만평

李元馥



“이것들이 정말...!”

동창회에 이런 일이...

12·1 월 행사 캘린더

12월 16일(목) 오후 6시30분

•상대 60학번 동기회 송년회

서울 양재동 EL타워
(문의 : 586-8217)

12월 27일(월) 오후 6시30분

•전북지부동창회 송년회

전북 전주시 백리향
(문의 : 063-275-4555)

12월 16일(목) 오후 7시

•HPM동창회 송년회

서울 장충동 그랜드앰배서더호텔
(문의 : 763-7505)

1월 11일(화) 오후 4시

•농생대동창회 신년회

서울 역삼동 르네상스호텔
(문의 : 882-8630)

12월 20일(월) 오후 6시

•ACAD동창회 송년회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문의 : 871-8951)

1월 14일(금) 오후 6시30분

•기계동문회 신년회

서울 역삼동 르네상스호텔
(문의 : 889-0133)

12월 21일(화) 오후 6시

•GLP동창회 송년회

서울 삼성동 코엑스 그랜드볼룸
(문의 : 6000-6520)

1월 17일(월) 오후 6시30분

•상대동창회 정기총회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문의 : 761-2278)

제13회 ‘관악대상’ 후보자를 찾습니다

모교와 동창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함은 물론 사회 각 분야에서 훌륭한 업적을 쌓아 국가와 사회에 공헌해 모교와 동창회의 명예를 드높인 동문(비동문) 또는 단체를 찾습니다.

동문 여러분께서는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시고 여러 이웃 동문에게도 널리 알려 많은 후보자의 추천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시 상 부 문	
참 여 상	모교 발전과 동창회 활성화에 적극 참여해 기여한 동문 개인 또는 단체
협 력 상	모교 발전과 동창회 활성화에 유무형의 헌신과 봉사로 기여한 동문·비동문 개인 또는 단체
영 광 상	사회 공익과 국가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훌륭한 업적을 쌓아 모교와 동창회의 긍지와 명예를 드높인 동문 개인 또는 단체

1. 시상 부문 : 동창회 지표인 ‘참여’ ‘협력’ ‘영광’에 따라 세 부문으로 구분
2. 구비 서류 : 추천서, 피추천자의 공적사항
3. 추천서 접수 : 1) 접수마감 : 2011년 1월 31일
2) 접 수 처 : 서울시 관악구 낙성대동 산4-2 서울대 연구공원 본관 217호
서울대총동창회 사무처 (전화 : 702-2233 · 팩스 : 703-0755)
4. 시상 시기 : 서울대총동창회 정기총회(2011년 3월 18일)

서울대총동창회장 林 光 洙·관악대상 운영위원장 孫 一 根

사대동창회

합창단 멋진 하모니 연출

사범대학동창회(회장 卞柱仙)는 지난 11월 29일 서울 장충동 그랜드앰배서더호텔에서 송년회를 개최했다.

여느 해와 달리 3백석 규모의 대형 연회장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는 2백여 명의 동문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특히 빠른 행사 진행과 합창, 독창 등 음악 공연 위주로 프로그램을 구성해 동문들의 뜨거운 호응을 받았다. 체육교

육과는 23명의 동문들이 참석해 최다참석 학과상을 받기도 했다.

이날의 하이라이트는 사범대학 합창단 출신 동문들로 구성된 COE합창단의 축하 공연 순서였다. 합창단은 ‘사랑은 영원히’, ‘스테인송’, ‘바위섬’ 등을 열창하며 송년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2년 전 발족한 COE합창단은 50~80년대 학번 동문 50명으로 구성됐으며 매월 모임을 갖고 있다.



모교 사대 金鍾旭학장은 “합창단 선배님들이 무대로 걸어 나오시면서 부르는 노래 소리에 짜릿한 전율을 느꼈다”며 “아름다운 화음을 들으면서 우리 대학도 합창단처럼 멋진 하모니를 이뤄 우

리나라 교육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 행사를 위해 卞柱仙회장이 3백만원과 건강검진권을 찬조한 것을 비롯해 鄭元植(교육48-

54)·姜信主(사회교육51-55)·崔永相(영어교육56-61)·金華永(교육57-64)·崔秉鎬(화학교육57-61)·李惠星(국어교육58-62)·李起台(불어교육59-65)·李寅圭(지구과학교육59-65)·姜松植(영어교육60-64)·李喜鎔(교육60-64)·尹龍赫(독어교육60-64)·崔容準(수학교육61-65)·崔雲植(지리교육63-67)·李益煥(영어교육64-68)·高潤燮(영어교육65-72)·金範基(물리교육66-70)·方在旭(생물교육68-75)·千歲英(교육75-81)동문 등이 정수기, 노트북 등 푸짐한 금품을 협찬했다.

경대원동창회

젊은 동문들이 빛낸 송년회

경영대학원동창회(회장 李鎭芳)는 지난 11월 22일 서울 역삼동 메모리스에서 송년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李鎭芳회장, 모교 安泰植학장을 비롯해 경영전문대학원 출신 새내기 동문 등 1백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李鎭芳회장은 “MBA 출신 젊은 동문들이 많이 참석해줘서

고맙다”며 “동창회가 더욱 젊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安泰植학장은 “李鎭芳회장님의 3억원, 金英大전임 회장님의 50억원 출연으로 경영전문대학원이 출범할 수 있었다”며 “오늘 모임을 시작으로 경영대학원 출신 선



李鎭芳회장, 이규범·정인규 장학생, 安泰植학장

배님들과 경영전문대학원 후배들이 하나로 뭉쳐 동창회가 더욱 발전해 나가길 바란다”고 축하했다.

동창회는 이날 올해 정년 퇴임한 모교 尹桂燮(상학64-68)명예교수에게 감사패를 증정했으며,

모교 경영전문대학원 金祥薰(경영84-88)·梁弘錫(경영88-92)교수에게 우수 강의상을 수여했다. 또 경영전문대학원 이규범·정인규 군에게 장학금 3백만원을 전달했다.

만찬 후 모교 경영학과 朴南奎(경영84-89)교수가 ‘Creating Future through Competition : Apple vs. Google’이란 제목으로 특강을 펼쳤다.

행사를 위해 롯데백화점 李哲雨(농경제61-65)대표가 기념품을 협찬했다.

동문작품 지상전시회

姜 瑛 秀 作



‘자작나무와 잔디’, 수채화, 90.9×72.7cm, 2010.

〈작가약력〉

- ▲57~61년 모교 회화와 졸업
- ▲97년 서경갤러리전, 독일 로호갤러리전
- ▲00년 서울대 미대 동문전
- ▲97~10년 한국미술협회전, 한국화회전
- ▲07~10년 혼울회전
- ▲한국화가



생활대동창회

金敬愛동문 등 기금 출연

생활과학대학동창회(회장 禹敬子)는 지난 10월 30일 모교 생활과학대학(학장 權薰貞)과 졸업 30·40·50주년을 맞은 동문들을 모교로 초청해 홈커밍데이 행사를 개최했다. 〈사진〉

이날 행사에는 李順媛·李基春명예교수를 비롯해 50여 명의 동문이 참석해 새롭게 바뀐 모교를 둘러봤다.

모임 후 金敬愛(가정교육66-70)·孫慶姬(가정교육66-70)·李基榮(가정교육66-70)동문은 모교 발전기금으로 각각 1백만원을 출연했다.

롯데 동진세미켄 李富燮회장,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李基俊회장, 모교 李華榮·崔昌均명예교수 등 1백여 명의 동문이 참석했다.

동창회는 송년을 기념해 장학기금으로 3천6백만원을 출연한 金春吉(화학공학58-62)동문에게 감사패를 증정했으며, 모교 安景鉉학부장에게 도서지원금 2백50만원을 전달했다. 또 4학년 재학 중인 이수홍 군에게 장학금을 수여했다. 이날 총회 사업보고에서 최근 명부를 제작해 1차 발송을 완료했으며, 웹소식지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화학생물공학부동창회

金春吉동문에 감사패

화학생물공학부동창회(회장 楊世仁)는 지난 11월 23일 서울 태평로 프라자호텔에서 정기총회 겸 송년회를 개최했다.

이날 모임에는 楊世仁회장을 비

현재 동창회 임원으로 楊희장을 비롯해 林鍾贊(공업화학75-79)수석부회장, 高在旭(화학공학76-80)부회장, 許完洙(공업화학76-80)·宋京鎬(화학공학78-82)감사, 辛泓炫(화학공학84-88)간사장, 金愛羅(화학공학85-89)여성간사, 朴賢修(화학공학86-91)골프간사 등이 수고하고 있다. 〈南〉

해양학과동창회

자랑스러운 동문 시상

해양학과동창회(회장 方仁權)는 지난 11월 13일 모교 관악캠퍼스에서 朴龍安·鄭鍾律명예교수를 비롯해 50여 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홈커밍데이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오후 2시 관악사 실내체육관에서 명랑운동을 시작으로 추억의 장소 방문, 만찬



및 기념행사 순으로 이어져 오후 9시 무렵 마쳤다.

교수회관에서 진행된 기념행사

에서 2010년 자랑스러운 동문으로 모교 지구환경과학부 李尙默(해양81-85)교수를 선정해 상패를 수여했다. 재학생 2명에게 장학금도 전달했다.

세계 최고의 장학빌딩 내년 2월 준공

한강 내려다보이는 스카이라운지 전망 일품

본회 장학빌딩이 내년 2월 준공을 앞두고 위용을 드러냈다.

세계 최고의 동창회관을 만든다는 목표 아래 2007년 6월 착공한 장학빌딩은 지상 19층, 지하 6층의 규모를 자랑하는 국내·외 최고 수준의 동창회 건물이다. 현재 마무리 공사가 한창이다.

건물에는 최첨단 기술 및 고급 인테리어 자재가 적용돼 화려함을 뽐냈다. 특히 4층 ‘명예의 전당’에는 모교와 본회의 역사를 담아 동문들로 하여금 모교에 대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하고, 동

문들의 모교 사랑을 가리기 위해 장학빌딩 건립에 십시일반으로 기금을 보내준 동문의 이름을 벽면에 새겨 기록기로 했다.

또한 동문들이 ‘명예의 전당’을 천천히 둘러보고 간단한 음료를 들면서 쉴 수 있도록 한쪽 공간에는 ‘동문들의 쉼터’를 만들기로 했다.

스카이라운지로 한강이 한 눈에 내려다보이는 18층은 1백86㎡ 규모의 잘 가꾸진 옥상 정원과 함께 3백58㎡ 규모의 고급 레스토랑으로 꾸밀 예정이다. 스카이라운지 레스토랑은 동문만이 아니라 일반

인도 가족단위로 찾아와 각종 모임을 할 수 있도록 만남의 장소로 활용할 계획이다. 18층 임대예 관심 있는 동문은 본회 사무처(02-702-2233)로 문의하면 된다.

임대수익금이 모교 지원 사업으로 사용되는 장학빌딩은 지하철 5호선·6호선과 공항철도가 교차되는 지점인 공덕역에 인접해 있다.

서울의 도심을 연결하는 곳인데다 인근에 대규모 공원이 조성될 예정이라 동문은 물론 일반인이 오가며 여가를 즐기기에 부족한 없는 ‘서울의 명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智)

ROTC동문회

洪炯鎬동문 골프 우승

ROTC동문회(회장 金鍾燮)는 지난 11월 13일 경기도 여주그랜드CC에서 골프대회를 개최했다.

金鍾燮회장을 비롯해 60여 명의 동문이 참가한 이날 경기에서 洪炯鎬(중문83-87)동문이 72.2(네트스코어)의 기록으로 우승을 차지했으며 메달리스트는 73타를 친 宋宇燁(체육교육79-83)동문에게 돌아갔다. 2위에 72.4를 기록한 曹秉祐(불어교육86-90)동문, 3위에 73타를 친 徐在永(자원공학76졸)동문이 올랐다.

롱기스트상은 2백50m 장타를 날린 鄭日奎(체육교육84-88)동문, 니어리스트상은 4.1m 거리에 안착시킨 방국연(언어87-91)동문에게 돌아갔다. 그밖에 다과상은 黃仁業(농생물74-78)동문, 다보기상은 金春相(전자공학72졸)동문이 받았다.



뉴욕지부동창회

동산·골프대회 가져

뉴욕지부동창회(회장 姜忠武)는 지난 10월 23일 뉴욕주 해리먼 주립공원내 핑거보드산에서 50여 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추계 등산대회를 개최했다. (사진)

5시간의 산행을 마친 참석자들은 집행부에서 준비한 푸짐한 먹을거리를 맛보았으며, 보물찾기 등 여흥을 즐기면서 滿山紅葉의 가을 정취에 흠뻑 젖은 하루를 보냈다.

한편 10월 9일 뉴욕 허드슨 힐스 골프클럽에서 秋載玉이사장배 골프대회를 가졌다.

80여 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대회에서 金文彦(금속공학72졸)동문이 메달리스트상을 수상했다. 남자부 1위는 宋雄吉(신대원71졸)동문에게 돌아갔으며, 趙達勳(수학교육71졸)동문의 부인이 여자부 1위를 차지했다. 또 尹泳敦(법학63졸)·金蘭基(생물교육63-67)동문이 장타상, 趙達勳·高雲淑(약학64졸)동문이 근접상을 받았다. (南)

특별기고

본회 金在淳명예회장이 지난 10월 28~31일 일본 동경, 하코네(箱根)에서 ‘Vision 2045 : 한·일 관계를 내다본다’는 주제로 열린 한·일문화교류기금 창립 25주년 기념행사에 참석, 개회스피치를 했다. 그 내용을 요약해 소개한다.

1965년 당시 한·일 국교 정상화 때와 비교해보면, 비대칭적이었던 양국의 관계는 체제가치를 공유한 균형 잡힌 형태로 변화,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계기로 식민지 지배에 대한 한·일 양국의 사회적 인식에도 커다란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한국과 일본의 관계는 실로 역동적으로 바뀌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가치관을 공유하는 한·일 양국이 선진국의 높은 수준의 무역자유화 원칙을 만든다면, 양국의 경쟁력 향상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경제 발전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양국은 각자 내부적으로 조정해야 할 난제가 있겠지만, 전반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경제동반자협정(EPA) 조기체결 실현 등 결단을 내려야 할 일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곳에 오기 전에 중국 상해EXPO를 참관했습니다. 그곳에서 무엇보다도 저를 크게 압도했던 것은 EXPO에 모여든 군중이었습니다.

하루에 1백만명이 구름떼처럼 모여드는 것을 보고 힘이라고 할까, 아니면 氣라고 할까, 뭐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변증법적으로 말하자면 그 압도적인 숫자가 量에서 質로 변화된다면 어떤 형태가 될런지요? 게다가 중국은 전제국가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자본주의의 이점도 손에 넣은 통치모델을 세계에 과시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 10월 23일 신라의 고도 경주에서는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가 개최됐습니다. 당초 예상과는 달리 극적인 타결에 성공한 것 같았습니다. 주한미국 대사 캐슬린 스티븐스는 “한국이 G20 의장국으로서 수뇌정상회담을 개최하게 된 것이 정말 꿈만 같은 이야기”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한국이 한때는 외국의 원조를 받던 가난한 나라였다가 이제는 세계의 정상들을 한 자리에 모아 국제사회의 핵심문제를 논한다는 것 자체가, 결과는 차치하고라도, 한국에 긍정적인 결과를 초

래한 것이라고 평가한 것이었습니다.

한때, 중국에서는 ‘평화발전론’을 주장했지만, 사실 그것은 등소평이 주장한 ‘저자세노선’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지금은 싱가포르의 리관유가 지적한 것처럼 “중국이 이제는 저자세로 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리관유는 또한 “이제 앞으로 30~50여 년간은 미국의 시대가 될 것”이라고 하면서도 “이것은 미국의 경제력

한·일 지식인 교류회에 즈음해

에 달했다”고 말했습니다. 세계의 극적인 힘의 변동은 무엇보다도 경제와 금융의 격변에서 촉발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무엇보다도 글로벌 시대에 글로벌하게 활약하며 자신의 능력을 발산할 수 있는 유능한 인재를 키우는 일입니다. 그 중에서 정치적 리더십의 육성이야말로 정말 중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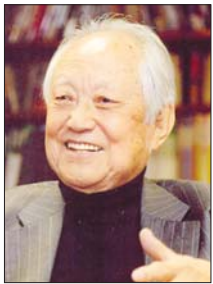
문득 1970년대의 프랑스 대통령 지스카르 데스탱과 당시 서독 수상 헬무트 슈미트의 우정이 떠오릅니다. 어느 날 슈미트 수상이 데스탱 대통령에게 밝힌 개인적인 비밀은

자신의 아버지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전쟁 범죄나 홀로코스트(나치에 의한 유대인 대학살)에 대한 보복이 계속되고 있던 한 가운데서 독일연방 수상, 더구나 전 세계에 가장 잘 알려진 독일 정치가 슈미트 수상이 유대인

아버지에게서 태어났다는 고백은 매우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후일 지스카르는 다음과 같이 회고했습니다. “슈미트가 가슴 깊이 감춰뒀던 가장 중요한 비밀을 끄집어낸 밝힌 것은 그야말로 유니크한 행동이었지요. 그래서 이 사건을 계기로 우리 두 사람의 우정은 모든 정치적 파란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본과 한국, 한국과 일본의 지성을 대표하는, 친애하는 여러분! 역사적인 경쟁 속에서도 한 사람의 인간과 인간이 깊고 돈독하게 키워온 위대한 우정- 지스카르와 슈미트 사이에서 맺어진 국경을 초월한 우정-이야말로 글로벌시대의 훌륭한 초석이 되지 않을까요? (日文國譯)



金在淳
본회 명예회장

제8회 서울대 언론인 大賞

“수상 후보자 추천해 주세요”

서울대 언론인 大賞 관리위원회는 제8회 ‘서울대 언론인 大賞’ 수상 후보자를 추천받습니다. 서울대 언론인 大賞은 관악언론인회와 서울대총동창회가 한국 언론의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큰 서울대 출신 언론인에게 시상하는 상입니다. 서울대 언론인 大賞 후보자를 널리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추천대상 : 서울대 출신으로 국내외 신문사 방송사 통신사 잡지사에 근무하는 언론인, 언론사 경영인, 언론 학자, 언론단체 종사자, 언론정책 담당자.
2. 추천인
1) 신문사 방송사 통신사 잡지사의 대표, 주필, 주간, 해설위원장, 편집·보도국장, 편집장 등 부서장
2) 언론단체의 대표
3) 대학 언론학 학과장, 대학원장
3. 심사대상 : 2009년 12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 까지의 공적을 원칙으로 하며, 최근 3년 이내의 공적도 참고할 수 있음.

4. 제출서류
1) 추천서 : 후보자의 상세한 인적사항과 이력 및 경력, 공적 개요, 추천 사유를 명기한 자유 양식의 추천서를 작성해 E-mail(snu1969@naver.com)로 접수시켜야 함.
2) 공적 자료 : 주요 기사, 방송 자료, 논문, 공적서를 파일화해서 E-mail로 접수. 필요에 따라 직접 제출 가능.
5. 추천기한 : 2011년 1월 31일
6. 수상자 발표 : 2월 중순
7. 시상식 : 2월 정기총회
8. 문의 : 02)886-2219

서울대 언론인 大賞 관리위원회



법대동창회

등산·바둑대회로 친목 다져

법과학동창회(회장 金慶漢)는 지난 10월 30일 서울 도봉산에서 동문 가족 1백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회 등산대회를 열었다. <사진>
오전 9시 30분 도봉산역에 집결한 동문들은 2개조로 나눠 통일교-우이암을 거쳐 전망대-서원교-매포소로 돌아오는 3시간 풀코스와 보문능선에서 천진사 방향으로 하산하는 2시간

단축코스를 등반하며 친목을 다졌다.
이날 행사를 위해 李載厚전임 회장, 金慶漢회장, 金周仁·任秉濶동문 등이 금품을 협찬했다.
한편 동창회는 지난 11월 28일 서울 흥익동 한국기원에서 60여 명의 동문이 참가한 가운데 바둑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경기 결과는 다음과 같다.
▲단체전 : 우승 16회 동기회,

2위 18회 동기회 ▲개인전 A조 : 우승 具相鎭(법학68-72)동문, 2위 曹東進(행정63-67)동문 ▲개인전 B조 : 우승 黃仁喆(행정60-64)동문, 2위 朴鍾瀾(법학60-65)동문

AIC동창회

金興南원장 초청 강연

정보통신방송정책과정동창회(회장 李世漢)는 지난 11월 23일 서울 잠실동 롯데호텔에서 李世漢 회장, 모교 행정대학원 崔鍾元원장, 金東旭교수 등 1백여 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조찬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한국전자통신연구원 金興南(전자공학75-80)원장이 ‘R&D의 현재와 미래’란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AIC동창회는 2007년 11월 ‘정보통신방송정책포럼’을 창립해 1천1백여 명의 회원을 대상으로 분기별 세미나를 열고 있다.



동승클럽

석모도로 가을여행

문리대 65학번 동기 모임인 동승클럽(회장 朴熙俊)은 지난 10월 30일 인천시 강화군 석모도로 가을여행을 다녀왔다. <사진>
李駿商(미학65-76)동문의 안내에 따라 동문들은 석모도 해수온천을 체험하고 강화 고인돌, 보문사, 평화전망대 등을 관광하며 뜻깊은 하루를 보냈다.

관악교수테니스회

柳根寬·朴一赫교수 우승

관악교수테니스회(회장 李南麟)는 지난 11월 6일 모교 관악캠퍼스 교수테니스코트에서 2010년 추계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회에는 32명의 동문이 참가해 A+ 조, A조, B조로 나눠 열띤 승부를 펼쳤다.
행사를 위해 본회 林光洙회장, 모교 吳然天총장을 비롯해 교수협의회, 각 단과대학, 언어교육원, 인문학연구원, 기초과학동기기원, 생활복지조합, 농협,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에서 금품을 찬조했다.
관악교수테니스회는 모교 교수 2백30여 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경기 결과는 다음과 같다.
▲A+ 조 : 우승 柳根寬(경제79-83)·朴一赫(체육교육87-91)교수, 2위 權赫昇(영문81-85)·李孝元(공법83-87)교수, 3위 李慶洙(기계공학81-85)·金都淳(농학85-89)교수 ▲A조 : 우승 李奉振

(약학77-81)·安光錫(생물교육81-85)교수, 2위 金相國교수·金峰權(경제86-90)교수, 3위 朴鍾來(섬유공학81졸)·張鳳淳(의학81-87)교수 ▲B조 : 우승 柳鍾睦(중문73-78)·李仁盛(지질75-79)교수, 2위 鄭哲秀(체육교육68-72)·徐正雙(화학교육71-75)교수, 3위 李相冕(법학69-73)·崔鍾根(자원공학84-88)교수

임학동문회

태화산 학술심서 총회

임학동문회(회장 鄭昌鉉)는 최근 경기도 광주시 태화산 모교 학술림 자연자원연구동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尹汝昌총무이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총회에서 회비 인상에 대한 회칙 개정이 있었으며, 卞山玄信圭(수원고농30-33)박사 탄생 1백주년 기념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모임에는 鄭昌鉉회장, 金演表 명예회장, 沈弼求·鄭潤煥교수를 비롯해 60여 명의 동문이 참석했다.
HPM동창회
학술세미나 개최
보건의료정책과정동창회(회장 李相昊)는 최근 서울 태평로1가 코리아나호텔에서 80여 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CHA의과학대 嚴永振(사회63-67)교수를 초빙해 ‘신의료기술 평가의 나아갈 방향’이란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南)

토목공학과동창회

자랑스런 동문 시상

토목공학과동창회(회장 趙景遠)는 지난 10월 31일 모교 관악캠퍼스 교수회관에서 ‘모교 방문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졸업 30주년을 맞은 34회 동기회(대표 韓萬樺) 주관으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趙景遠회장, 모교 건설환경공학부 金在寬학부장 등 3백여 명의 동문 가족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34회 동기회는 모교 발전기금으로 1천2백만원을 출연했으며, 행사비용 일체를 제공했다. 韓澈鐘(토목공학55-59)·趙鏞準(토목공학56-60)동문은 동창회 발전기금으로 각각 1천



‘모교 방문의 날’ 행사를 주관한 34회 동기들

만원을 기부했다.
한편 동창회는 2010년을 빛낸 자랑스러운 동문으로 대한토목학회 全京秀(토목공학67-71)회장, LIG건설 姜熙容(토목공학69-73)사장, 코오롱건설 李朱洪(토목공학69-73)사장, 상하수도학회 金榮官(토목공학73-77)회장, 세계터널학회 李寅模(토목공학73-77)회장, 지능형

국토정보기술혁신사업단 金秉國(토목공학74-78)단장, 서울시 李仁根(토목공학75-79)도시안전본부장을 선정해 상패를 수여했다. 성적 우수 재학생 2명에게는 장학금 6백40여 만원을 지급하기도 했다.
동창회는 회원명부를 새롭게 제작해 12월 말부터 동문들에게 발송할 예정이다.

신임 동창회장 인터뷰

SGS동창회 曹白一회장
(공간세라믹 대표)



도시환경고위정책과정(SGS)동창회는 李東俊(14기)회장이 임기 중 사퇴의사를 밝힘에 따라 새 회장에 공간세라믹 曹白一(6기)대표를 추대했다. 그동안 SGS동창회 소식이 뜸해 궁금하던 차에 지난 11월 17일 서울 대치동 사무실에서 회회장을 만나 그간 활동 내용과 향후 계획을 들어봤다.
- 정확히 언제 취임하셨죠.
“지난 6월 30일 임원회의에서 추대됐어요. 3명의 수석부회장

가운데 가장 기수가 앞서다 보니 맡게된 듯 싶어요. 12월 정기총회에서 정식 절차를 밟아 동문들께 신임을 받아야죠.”
- 모임은 계속돼 왔나요.
“그럼요. 분기별로 조찬 모임을 가졌고, 각 과정별로 포럼 등

을 해왔죠. 저는 동창회 대표로 환경대학원 졸업식, 장학금 수여식에도 참석했구요. 11월 말에는 6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골프대회도 열 계획입니다. 전체 회원은 24기까지 7백50명 정도 됩니다.”
- 2년 임기인데, 앞으로 계획이 어떤.

받을 수 있는 장으로 만들어 가려고요.”
- 동안인데 건강관리 비법은.
“동안이 꼭 좋지만은 않더라고요. 회장이라면 그에 걸맞은 품채와 외모가 있어야 좋은데, 가끔 손해볼 때가 있습니다(웃음). 아직 건강을 말할 나이는 아니지만, 여유를 갖고 살기 때문에 젊

한 명 한 명이 소속감을 갖고 끈끈한 모임으로 만들어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954년 충북 영동 매곡면 출생인 회회장은 서울고등학교를 거쳐 한양대 전기공학과를 졸업했다. 1983년 설립한 공간세라믹은 친환경 생태전문기업으로써 우리나라 점토벽돌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서울 본사를 비롯해 경기도 안성, 경북 상주 공장에 1백40여 명의 직원이 일하고 있으며 지난해 매출액은 1백90억원 정도. 바다·조적용 벽돌뿐 아니라 환경조형물 사업에도 관심을 갖고 유명 테라코타 작가인 韓愛奎(응용미술73-77)동문을 디자인 감독으로 영입해 친환경적 예술작품을 제작하고 있다. 부인과 사이에 대학생인 형제를 두고 있다. (南)

“장학기금 마련에 최선”

어 보이는 게 아닌가 싶어요.”
- 마지막으로 동문들에게 한 말씀.
“평생 함께 갈 수 있는 모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그러나 동문들의 참여 없이는 아무 것도 할 수 없습니다. 회원

“장학사업을 확대하고 싶어요. 매년 1천5백만원 정도는 지원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시드머니로 조금 내고 관심 있는 분들의 출연을 유도하려고 합니다. 동문 모임은 ‘즐겁고 유익하게’를 모토로 서로 도움을

화제의 동문

대학생활문화원 高尚根 리더십개발부장

“5분 명상으로 인생이 바뀝니다”

매 순간을 긴장 속에 살아야 하는 현대인에게 스트레스가 없는 삶이란 어쩌면 꿈과 같은 일인지도 모른다. 면접, 입시, 승진 등 우리는 각종 스트레스 속에 묻혀 살지만 정작 이를 풀기 위한 노력은 잘 하지 않는다. 만약 하루 5분의 명상으로 스트레스에서 해방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

모교 대학생활문화원 리더십개발부장, 기초교육원 리더십센터 소장인 기계항공공학부 高尚根(공업교육73-78)교수는 “분명 인생이 바뀔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했다. 온 몸의 긴장을 풀어주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명상은 5분의 투자로도 충분히 인생이 바뀔 만큼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그의 말이 정말 사실일까?

교수 대상으로 명상법 강의

지난 11월 9일 대학생활문화원에서는 특별한 종강식이 있었다. ‘교수를 위한 심신 건강 증진 프로그램’이 이번으로 4번째 종강을 맞은 것인데 이번 강의에서 모교 교수 10여 명이 수강을 종료했다. 총 8주차의 강의에서 高동문은 동료 교수들에게 ‘아우토크 트레이닝’이라는 서양식 명상법을 전수했다. 매 학기 강의 때마다 수강생이 10여 명 정도 됐는데 지금까지 모교 교수들을 상대로 8주차 이상의 강의를 이렇게 장기간 진행된 적은 거의 없다고 한다.

“교수는 생각보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연구에 각종 업무까지 하다보니 제대로 쉴 틈이 없죠. 처음에는 대학생활문화원 직원들을 대상으로 강의했는데 반응이 좋아 교수들에게도 강의하기 시작했어요. 리더십 개발 프로그램과 번갈아 가면서 하다가 올해에는 심신 건강 프로그램만 2학기를 강의했죠.”

수업은 일주일에 1번, 오후 3시부터 5

시 30분까지 ‘아우토크 트레이닝’을 배우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아우토크 트레이닝’이란 독일의 의사인 요하네스 슉츠(Johannes H. Schultz)박사가 고안해낸 이완 요법이다. 현재 유럽을 중심으로 널리 퍼져 있으며 병원에서 고혈압이나 당뇨병, 불안장애, 우울증 등 내과, 정신과적으로 진단이 가능한 질환의 치료에 시행되거나 심리상담소에서 심리 상담과 치료에 활용되고 있다.

이완법의 핵심은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을 이완하게끔 만드는 것이다. 마음 속의 생각으로 심신을 이완시켜 편안함과 평온함을 느끼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긴장과 스트레스는 자연적으로 사라진다는 게 高동문의 설명이다.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하다. 편안한 자세에서 이완 반응을 유도해내도록 선정되고 표준화된 자기 암시문을 머릿속에서 되뇌며 몸의 감각을 느끼면 된다. 예를 들어 첫 주에 배우는 기초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의자에 편히 앉은 후 ‘나는 편안하다’고 생각한다. 이후 천천히 ‘오른팔이 무겁다’고 생각하며 마음 속으로 6번 반복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생각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오른팔이 무겁다는 느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무겁다고 해서 무겁다는 표현에 집착하기보다는 팔의 존재를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고 高동문은 설명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나는 편안하다’고 생각하며 명상을 끝낸다.

전체 강의는 순서에 따라 근육을 이완시키는 단계에서 혈관 이완, 호흡의 조율, 심박의 조율, 복강의 이완, 사고와 감정의 정화 단계로 넘어간다. 명상은 5분 이내의 시간으로 매 수업에서 2~3번 정도 진행된다.

짧은 시간 안에 할 수 있고,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게 명상이



SNU 이완법 기초 단계

1. 의자에 편히 앉는다.
2. ‘나는 편안하다’고 생각한다.
3. 어깨를 들어 올렸다 내리면서 ‘내 어깨가 이완됐다’고 생각한다. (30초 내지 1분)
4. ‘나는 편안하다’고 생각한다.
5. ‘오른팔이 무겁다’고 생각한다. (30초 내지 1분)
6. ‘나는 편안하다’고 생각한다.
7. 평상시로 돌아온다.

※ 어깨가 이완됐다고 생각할 때는 실제 내 어깨가 이완됐다는 느낌을 받아야 한다. 억지로 하기보다는 본인이 편한 대로 자연스럽게 느끼도록 한다.

라고 高동문은 강조했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가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에 쌓여 있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자신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하죠. 명상을 통해 가만히 앉아서도 심신을 편안하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아요. 도구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돈이 드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모든 사람들이 명상법으로 스트레스 좀 풀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자신이 직접 ‘SNU 이완법’이라는 명상법을 만들 정도로 이완에 관해서는 누구 못지 않은 전문가이지만 그가 처음 명상을 접하게 된 것은 대학생 시절이었다고 한다. 대학 3학년 때 우연히 인도의 초월 명상(TM)을 배울 기회가 있었는데 심신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 이후 ‘아우토크 트레이닝’ 등을 배우며 지금까지 오게 됐다고.

“스트레스 좀 풀고 삽시다”

항상 명상을 통해 이완 속에 살고 있고, 매 순간을 긴장하지 않으려 노력한다는 高동문은 스트레스 해소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리더가 갖춰야 할 중요한 덕목 중 하나가 바로 스트레스 극복입니다. 리더가 만날 썬즈를 내고 있다면 조직이 제대로 굴러갈지 없잖아요. 리더는 언제나 주위 상황에 휩쓸리지 않고 객관적으로 사태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해요. 그래야 큰 일을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무엇보다 마음이 가라앉아 있어야 하거든요. 마음이 평화롭고 평정한 상태여야 진정으로 힘있는 리더십이 나오죠.”

마침 인터뷰가 있던 날은 대학수학능력 시험일이었다. 둘째 딸이 이번 수능시험을 본다는 그는 “딸의 긴장을 풀어주기 위해 어젯밤과 오늘 아침에 딸과 함께 명상을 했다”고 웃으며 말했다. 덕분에 딸이 긴장을 덜하는 것 같더라고.

“사람이 살다보면 긴장을 안 할 수 없잖아요. 시험을 볼 때, 혹은 면접을 보거나 중요한 일을 앞두고 누구나 초조해하기 마련이죠. 만약 간단한 명상으로 긴장을 줄일 수 있다면 그것보다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스트레스를 덜 받으니 삶이 건강해지고 행복해지죠.”

‘생각이 바뀌면 생활습관이 바뀌고, 생활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는 말이 있다. 만약 잠깐의 시간을 투자해 몸과 마음이 건강해질 수 있다면 충분히 해볼만하지 않을까? (智)

동북아 국가의 평화와 번영의 길 찾아 나서다

동문을 찾아서

鄭在貞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대담 : 金鎮國(중앙일보 논설위원) 논설위원

－ 취임하신 지 1년이 지났는데, 학교 시절 때와 비교해 보면 어떤가요.

“일이 무척 많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해서 퇴근 시간은 일정치 않고 토, 일요일도 없어요. 학술대회가 대개 주말에 열리거든요. 쉬는 날이 거의 없다보니 조금 힘들죠. 직원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70여 명의 직원들이 매년 80여 개가 넘는 행사를 치르고, 60~70권의 책을 발간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국사편찬위원회나 한국학중앙연구원처럼은 아니더라도 좋은 업무 환경을 만들어 주고 싶는데,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 언급하신 것처럼 국내에 국사 관련 연구 기관이 많지 않습니까. 사업 중에 겹치는 일도 있는 것 같은데, 동북아역사재단만의 특징이라면.

“상당히 많이 다르죠. 국사편찬위원회는 한국사 사료 수집과 편찬이 주 임무고, 한국학중앙연구원은 한국학의 본산이면서 한국학을 세계화하는 연구단체죠.

동북아역사재단은 한국을 둘러싼 주변 국가와의 역사 갈등 문제를 조정하고 화해하는 일을 하죠. 동아시아 공동체를 이루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역사 갈등이거든요. 한국사뿐 아니라 일본, 중국, 러시아, 베트남, 몽골 등의 역사도 연구하면서 어떤 점에서 견해가 다른가를 찾고 상대방과 논의하면서 견해의 일치, 공감대를 형성하는 일을 합니다.

또 하나는 영토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룹니다. 특히 독도 하면 국민적 관심사 아닙니까. 독도를 둘러싼 일본과의 갈등이 해마다 되풀이되는데, 그에 대한 역사적 경위를 밝히는 것은 물론, 한국의 영유권을 공고히 하기 위해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며 논리를 강화하고 또 세계에 알리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밖에 최근 크게 부각되는 것 중에 하나가 동해 표기 문제죠. 일본해로 돼 있는 것을 동해로 표기를 바꾸고 궁극적으로는 ‘평화의 바다’로 만드는 작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 통합되기보다 각자 역할을 계속 발전시키는 게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통합할 수도 없죠. 각 기관마다 본연의 임무가 있거든요. 특히 우리 재

단의 경우 연구만 하는 게 아니고 정책 개발과 실행까지 합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정부에 원인은 뭐고 경과는 어떻게 앞으로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대안을 제시해 줘야 하거든요.

그 다음 실행까지 합니다. 예를 들면 일본의 교과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평소에 일본의 교과서 집필자나 편집자 또는 정부 관계자를 만나서 우리 의견을 전달합니다. 중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요. 심지어는 국제사회에 동해와 독도 표기를 확산시키는 일을 직접 하거든요. 매일 전 세계 사이트를 검색해 잘못된 것을 발견하면 해당 관리자에게 연락해 시정작업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다른 기관에게 하라고 하면 하겠습니까. 할 수도 없죠.”

－ 그럼에도 시민 단체인 ‘반크’보다도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여론도 있습니다.

일본 교과서 검정 발표 예의주시

2012년부터 ‘동아시아史’ 과목 교육

“그건 상황을 몰라서 하는 소리죠. 역사나 영토 문제는 대단히 민감한 문제라서 정부가 직접 나서서 하는 경우, 혹은 산하 기관이 나서서 하는 경우, 오히려 상황을 그르치는 경우가 많아요. 센카쿠열도(다오위다오) 분쟁으로 일본 정부와 중국 정부가 정면으로 부딪친 게 좋은 예죠. 그러면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연구와 정책개발로 대응을 하면서 한편으로 하기 어려운 일은 NGO, 특히 ‘반크’와 긴밀하게, MOU를 맺어서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구한 자료를 제공하고 그분들이 발 빠르게 움직이는 거죠. 상당히 잘 짜여진, ‘원원’ 게임을 하고 있다고 봐요.

사실 역사관련 NGO나 시민단체를 지원하는 일은 우리 고유 업무 중 하나예요. 우리나라의 역사, 영토관련 시민 단체는 1백% 우리 재단과 유기적으로 연관돼 있고 실제적으로 지원받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공공연하게 이야기하지는 않

2010년은 우리나라가 일본에 강제병합된지 1백년 되는 해였다. 이를 기념해 동북아역사재단은 국제학술회의, 역사 아카데미, 사료 전시회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며 한·일 강제병합의 위법성을 대내·외에 알리고 올바른 역사정립을 위해 고군분투했다.

송년을 맞아 동북아역사재단 鄭在貞(역사교육70-74)이사장을 만나 한·중·일의 역사인식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이야기 듣는 시간을 가졌다. 鄭이사장의 답변은 20여 권의 책을 저술한 학자답게 논리 정연하고 군더더기가 없었다.

• 鄭이사장은

△1951년 충남 당진 출생 △대전고 졸업 △일본 동경대 한국사학(석사) △모교 대학원 국사학(박사) △한국방송통신대 교수 △일본 방송교육개발센터 객원교수 △서울시립대 국사학과 교수 △한·일 관계사학회 △일본 동북대학 동북아시아연구센터 객원교수 △서울시립대 박물관장 △한·일 역사공동연구위원회 위원 및 총간사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심의위원 △서울시립대 대학원장 △‘교토에서 본 한일통사’ 등 20여 권 집필 △치암학술상, 보라비 저작·번역상

습니다. 다른 나라에 알려지면 결코 좋지 않기 때문이죠.”

－ 말씀이 나오셨지만, 최근 센카쿠열도 문제로 중국과 일본이 갈등하고 러·일 간에

보 경쟁이 치열하잖아요. 특히 육지 자원의 고갈로 인해 해양 자원이 더욱 중요해지면서 배타적 경제수역에 사활을 거는 거죠.”

－ 동북아 지역에서 기존에도 동북아 안보 체제나 그런 구상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영토 문제를 포함한 과거사 문제에도 동북아 국가끼리 협력체제를 구축한다던지 연구 협조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대단히 중요하죠. 사실은 그게 동북아 역사재단의 존립 목적이고요. 우리는 인근 국가 간에 역사 갈등을 화해로 전환시키면서 대립과 갈등의 구조를 평화와 상생의 지역공동체로 만드는 작업을 합니다. 그러려면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어야 돼요. ‘동아시아’라는 공통분모를 만드는 작업을 우리 재단이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나 일본에는 우리 재단처럼 전문기관이 없어요. 다만 우리가 파트너로 삼을 수 있는 국제일본문화 연구센터 등 몇몇 단체가 있어 그런 곳과 자주 회의를 합니다.

재단이 주체가 돼서 하는 것 중에 ‘동아시아史 포럼’이 있어요. 한국, 일본, 중국, 타이완의 학자 30여 명이 매년 모여서 ‘지역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죠. 그런 유사한 국제학술회의를 1년에 30회 정도 개최해요. 그런 것을 통해 확산되는 효과는 지금은 미미할지 모르지만 10년 정도 지나면 굉장할 거라고 봐요. 우리 재단이 국제사회에 뿌린 화해와 협력의 씨앗이 동북아시아의 상생과 공영의 새싹으로 움터 무성하게 자라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 얼마 전 교수로 있는 친구한테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한·일간 대학생 교류 프로그램’을 진행하던 중 독도문제가 쟁점이 돼서 토론을 하다 보니 일본 학생들은 침착하게 논리적으로 자기 주장을 펼치는 반면 한국 학생들은 감정이 앞서 객관적으로 판정패를 당하는 느낌이 들더라. 학생들을 비롯해 많은 사람들이 독도는 무조건 우리 땅이란 인식이 강해 논리적인 교육이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공감합니다. 올해가 한국 강제병합 1백년이 돼서 한·일 대학생 20명을 선발해 교토에서 서울까지 한·일 관계의 중요지점을 답사하며 토론하는 행사를 가졌어요. 당시 한·일 주요 6개 신문사가 동행취재를 했는데 평가회에서 교도통신 기자가 이런 말을 하더군요. ‘종래의 한국 학생들은 한·일 역사관계에 대해 잘 알고 당당하게 일본 학생들을 꾸짖기도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한국의 역사교육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걱정하던 게 현실로 나타났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재단에서는 독도 교육 홍보를 상당히 강화하고 있어요. 대학생을 대상으로 독도 아카데미를 열어 연 7회 정도의 강의를 진행한 뒤 독도에 직접 데려가 체험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렇게 양성된 학생들이 올해까지 1천2백명 정도 돼요. 또 전국에 20여 개 독도지킴이 학교를 지원합니다. 그밖에 독도 관련 부교재를 만들어 초·중·고교에 보급하는 일을 하죠. 여론을 주도하는 분들을 모시고 독도 탐방도 하고요.

독도 외 역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동아시아史’란 과목을 만들었습니다.

도 북방영토를 놓고 분쟁 중이죠. 이렇게 갑자기 각 국가에 영토 문제가 심각하게 불거지고 있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동서 냉전이 심각했던 1980년 후반까지는 영토 문제가 동서 양진영 중 어디에 속하는 지에 따라서 컨트롤이 됐어요. 예를 들어 우리는 일본과 자유진영에 속하고 중국과 러시아는 공산진영에 속한다, 이런 마인드 때문에 영토 문제가 세계 구조 속에 묻혀 있었죠. 냉전이 종식되면서 각 국가들의 내셔널리즘이 상당히 강화됐어요.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향이 생긴 거죠.

또 하나는 1990년대 들어오면서 해양질서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12해리를 기준으로 하다가 2백해리를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선포하니까 이제는 작은 섬 하나도 아주 중요해진 겁니다. 그 주변의 2백해리가 자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이 되면 상당한 영토가 확보되는 거 아닙니까.

세 번째는 자원 문제입니다. 요즘 자원확

“독도 지키기 위해선 빈틈없는 논리로 무장해야”

☑ 2012년부터 동아시아사가 고등학교 선택과목으로 부과가 돼요. 일본, 중국에는 없죠. 현재 재단에서 동아시아사 과목에 대한 지침이랄까, 자료도 만들어 주고 교사 연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현재 중·고교에서 역사 과목이 위태로운 수준이죠.

“심각합니다. 일반 교육에서 사라져 가고 있어요. 세계사 교육은 사실 전멸하다시피 했고요. 일본은 고등학교의 경우 세계사가 필수로 돼 있어요. 일본사는 선택으로 해 놔는데, 그래도 85% 정도가 이수를 한다고 해요. 이렇게 되면 역사인식 면에서 일본이나 중국 젊은이와 이야기할 때 밀릴 수밖에 없죠.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대외 무역의존도가 높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학생일수록 세계를 상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 하거든요. 그러려면 다른 나라의 문화, 역사를 이해하고 함께 어울려 사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역사교육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거예요. 10년, 20년 이런 식으로 가면 정말 어떻게 될지 암담합니다.”

— 독도 홍보와 관련해서 좀 더 효과적인 방안이 강구돼야 할텐데요.

“사실은 내년 3월 말이면 일본의 교과서 검정이 발표됩니다. 일본이 현재 민주당 정부라 하더라도 중학교 교과서에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한 두 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중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서 독도에 대한 이해도를 심화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해설서는 정부 고시이기 때문에 법률적 효과가 있어요. 일본의 교과서 필자들도 검정에 합격하려면 쓸 수밖에 없다고 그래요.

3월 말에 그 문제가 터져 버리면 지금 센카쿠열도를 놓고 대치 중인 중국과 일본의 상황처럼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걱정스럽죠. 일본의 경우 독도가 왜 한국 땅이 아닌지 조목조목 반박하는 10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그 대응 방안을 미리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왜 독도가 우리 땅인지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해요. 독도를 지키기 위해서는 빈틈없는 논리로 무장해 있어야 합니다. 재단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독도가 왜 우리 땅인지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놓은 자료가 있어요. 꼭 들어오셔서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현재 독도 교육 홍보관도 생각 중인데, 예산 문제로 잘 될지는 모르겠어요.”

— 얼마 전에 이야기를 들으니까 국회의원들도 예산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했던 모양인데,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비해 그동안 정부 지원은 미약했던 모양입니다.

“대개 우리와 같은 기관은 설립 당시에는 정부의 의지가 강하다 보니 적극적으로 지원하다가 시간이 흐르면 예산이 삭감되는게 일반적이죠. 그에 대해 우려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특히 현장에 가면 알거든요. 중국 동북 3성 지역의 고구려 유적지에 가 보면 상당히 훼손된 것도 많고, 영토 문제를 둘러싸고 치열하게 공방 중인데 오히려 예산이 줄면 나중에 부메랑이 돼서 국민들의 저항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잘 대비하라는 뜻에서 국회가 예산을 증액해주려는 것 같아요.”

— 아무래도 이사장님이 오셔서 열심히 일하는 것을 보고 그런 게 아닐까요.

“그건 절대 아니고 우리 연구원, 직원들이 열심히 일해 준 덕분입니다. 특히 올해 우리 재단은 자부할 정도로 많은 일을 했다고 봅니다. 한·일 강제병합 1백년을 맞는 한 해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고민하며 열심히 준비했어요. 국회의원, 언론인, 학자를 동원해서 심포지엄도 열고 정책 의견도 내고 이런 저런 일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거의 매주 재단 활약 내용이 언론에 보도됐으니까요. 그런 것들이 평가를 받았다고 생각해요.”

— 이번에 일본에서 조선왕실 의궤 일부가 사실상 반환됐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반환이나 양도냐에 말의 차이는 있겠지만, 저는 무엇보다 일단 돌려받는 것에 대해 대단히 의미가 있다고 봐요. 이것이 끝이 아니고 시작이란 점에서도요. 일본에서는 조선총독부가 관여해서 강제로 또는 의도적으로 반출한 문화재가 있다면, 그 경위가 확실하다면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일본 동경 아카사카 오쿠다호텔 내 수코칸이란 사설 박물관에 있는 ‘이전오층석탑’을



해방이후 한·일관계 담은 책 구상중 “모교의 뿌리 찾은 작업 높게 평가”

반환하겠다고 하더군요. 조선총독부에서 가져간 거라서 기록이 모두 남아 있어요.

문화재를 되찾기 위해서는 반출된 문화재가 어떻게 나갔는지 경위를 파악하는 게 무척 중요합니다. 거기에 맞춰 반환을 요구해야 실효성이 있습니다.”

— 아시안게임에서 중국과의 축구경기를 보니, 우리가 한·일전에 열광하듯이 중국 사람들이 한·중전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동안 한·일간 문제에 관심이 쏠리다 보니 중국은 소홀했고 또 우리가 미국과 군사동맹을 맺고 있는 한 경제교류는 중국과 많이 하더라도 감정적으로 마찰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은데, 양국 국민간의 이해 확대 방법은 뭐가 없을까요.

“그게 우리 재단이 고민하는 것이고 나아가 정부도 그걸 가장 어려운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봅니다. 외교 중에서 가장 취약

한 부분이고요. 일본하고는 원한 관계가 깊고 여러 문제가 있지만, 패전 후 일본과 해방 후 우리나라가 같은 체제 속에 있으면서 어떤 면에서 공유하는 점이 많아요. 정부레벨에서는 싸우더라도 민간레벨에서는 의기투합해서 같이 행동하는 분들이 꽤 있죠.

그런데 중국은 그렇게 안돼요. 공식적으로는 사회주의 체제인데다가 일당 독재국가다 보니 정부의 역사인식과 배치되는 이야기를 하면 부딪치게 되요. 그걸 완화할 수 있는 시민레벨 또한 채널이 거의 없죠.

지금부터 그런 관계를 만들어 가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중국의 학자, 학생, 오피니언 리더들과 끊임없이 대화하고 회의도 하면서 서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신뢰를 쌓아 가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 개인적인 질문을 드릴게요. 이력 중에 동경대에서 한국사로 석사학위를 받은 게 특이합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근대사, 특히 일제시기를 연구하고 싶었는데 식민지 시대사 연구는 국내에서 하기 힘들었어요. 첫째는 기피대상이었고 둘째는 핵심 자료가 없었어요. 지금은 국내에서 모든 자료가 수집되고 복간돼 나오지만, 당시에는 밖에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이 있었죠.”

— 학창시절 연애담이나 에피소드는.

“아내를 학교에서 만났어요. 학과 후배(金順惠 역사교육71-75)예요. 소위 ‘CC(캠퍼스 커플)’였죠. 요즘 학생들은 학교에서 자유롭게 손잡고 다니지만, 우리 때만해도 그렇게 하면 손가락질 당했어요. 학교에서는 모든 게 하고 지냈죠. 답사도 자주 다니고 그러다 보니 서로 감정이 생겨 결혼으로 이어졌죠.”

— 책을 많이 집필하셨는데, 요즘 구상하고 있는 주제가 있으신가요.

“서울역을 중심으로 한 우리의 근·현대사를 압축해 쉽고 재미있는 책을 써보고 싶어요. 뭐랄까 서울역은 수도의 창구이자 대한민국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죠. 또 해방 이후 한·일 관계에 대해 일반인들이 부담없이 읽을 수 있는 책도 구상 중에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본회에서 추진했던 개교 원년 조정 사업에 대해 평가를 해 주신다면.

“뿌리를 찾는 작업을 했다는 점에서 대단히 높게 평가합니다. 1895년 법관양성소, 한성사범학교로 연결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근·현대사를 어떻게 보느냐와 관련된다고 봐요. 이미 조선 말기, 갑오개혁을 거쳐 1897년에 대한제국이 성립되는데 그때도 사실은 우리 스스로 근대화 정책을 추진하고 교육입국 운동도 했거든요. 그래서 근대적 학교도 만들어졌고요. 그 움직임이 일본의 식민지 지배가 없었다면 자연적으로 서울대로 연결됐을 거예요. 1907~1908년 애국계몽기 때 민립대학 설립 운동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서울대의 전사를 19세기말로 연결해서 잡는 것은 우리가 없는 시도입니다. 서울대의 역사를 한국인 스스로가 추진한 근대 교육운동에서부터 기술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옳다고 봅니다.”

(사진·정리= 金南柱기자)

독도가 우리 영토인 이유

지리적으로 동해의 독도는 울릉도로부터 87.4km, 오키섬으로부터 157.5km 떨어져 있다. 울릉도

에서는 독도가 육안으로 보이지만 오키섬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역사적으로 우리나라는 6세기 이래 독도의 존재를 인식해 왔다. 그러나 일본이 독도를 인식하기 시작한 것은 17세기 이후다. 또한 자국의 영토가 아님을 인정하는 일본의 사료 및 고지도가 다수 확인되고 있다.

국제법적으로 대한제국은 칙령 제41호(1900년)에 독도를 울릉도 관할구역으로 명기해 우리 영토임을 법적으로 선포했다. 한편 일본 시마네현은 고시 제40호(1905년)를 통해 독도를 자국 영토에 불법으로 편입시켰다.

제6회 교육상·제3회 학술연구상

중문과 柳種睦교수 등 수상

모교 소식

모교(총장 吳然天)는 지난 11월 4일 관악캠퍼스 교수학습개발센터(61동) 320호에서 ‘서울대 교육상·학술연구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교육상 수상자는 중어중문학과 柳種睦(중문73-78)교수, 심리학과 金正午(심리65-69)교수, 화학부 金明洙(화학67-71)교수,

농생명공학부 金裕龍(축산83-87)교수, 작곡과 吳姬淑교수 등 5명이다.

학술연구상은 동양사학과 朴漢濟(동양사학69-73)교수, 생물물리 및 화학생물학과 洪承焄(물리86-90)교수, 소비자동학부 李順炯(가정관리74졸)교수, 수의학과 趙明行(수의78-85)교수, 약학과 金相熙(제약84-88)교수가 수상했다.

올해 6회째인 교육상 수상자로는 5년 이상 재직 교수 중 수준 높



朴漢濟·吳姬淑·李順炯·金明洙·金正午·金相熙교수, 吳然天총장, 趙明行교수, 朴明珍부총장, 柳種睦·洪承焄·金裕龍·金泓鍾·申熙泳교수

은 강의와 창의적인 교육방법을 개발한 교수를 선정하며, 2008년 제정된 학술연구상은 창의적이고 활발한 연구활동을 한 교수에게 수여한다.

모교 吳然天총장은 축하에서

“모교에서 교육을 잘하고 우수한 연구를 하시는 교수님들을 확인하고 축하하는 것이 진정한 축제”라며 “교수단과 졸업생이 소외 받는 이웃과 함께 하고 사회의 약자를 배려할 줄 아는 참된 인재로 거듭

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수상한 교수들을 축하하기 위해 모교 吳然天총장을 비롯해 朴明珍·李昇鍾부총장, 보직교수, 재학생 및 가족 등 3백여 명이 참석했다.



安景鉉·朱永昶교수, 鄭哲圭이사장, 姜泰晉학장, 李旻武·金南秀·安成勳교수

공과대학

교수상·신양공학학술상 시상

공과대학(학장 姜泰晉)은 지난 11월 17일 관악캠퍼스 엔지니어하우스에서 2010년 ‘훌륭한 공대 교수상’ 및 ‘신양공학학술상’ 시상식을 가졌다.

훌륭한 공대 교수상의 교육상 부문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洪相憲(응용물리65-72)교수, 연구상 부문은 기계항공공학부 李旻日(기계공학72-76)교수가 수상했다.

신양공학학술상은 전기공학부 李旻武(제어계측80-84)교수, 에너지시스템공학부 朱漢奎(원자핵공학80-84)교수, 화학생물공학부 安景鉉(화학공학81-86)교수, 재료공학부 朱永昶(금속공학83-87)교수, 전기공학부 金南秀(전

자공학84-88)교수, 기계항공공학부 安成勳교수 등 총 6명이 수상했다.

훌륭한 공대 교수상은 1992년 공대 15회 동기회의 기부금으로 조성됐으며, 신양공학학술상은 2005년 신양문화재단 鄭哲圭(화학공학48-52)이사장이 모교 젊은 공대 교수들을 위해 출연한 발전기금으로 제정됐다.

姜泰晉학장은 인사말에서 “수상자로 선정된 교수님에게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 공과대학은 더 많은 학문적 성과를 축적하고 한국사회를 이끌어갈 훌륭한 인재를 양성해 2020년 세계 20위권의 공과대학으로 도약하도록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鄭潤煥·韓仁圭등문, 金完培·河鍾圭·白南天·金泓鍾교수, 朴恩雨학장

농업생명과학대학

상록연구·학술·교육상 수여

농업생명과학대학(학장 朴恩雨)은 지난 11월 26일 관악캠퍼스 호암교수회관 무궁화홀에서 2010년 상록농업생명과학연구대상(이하 상록연구대상) 및 학술상·교육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제18회 상록연구대상 수상자에 농업생명공학부 河鍾圭(대학원77졸)교수, 제10회 학술상 수상자에 식물생산과학부 白南天(농학81-85)교수, 제8회 교육상 수상자에 농경제사회학부 金完培(농경제71-75)교수가 선정됐다.

상록연구대상은 1991년 농생대 동창회 韓仁圭(축산52-56)前회장이 농생대 교육연구재단에 출연한 1억원과 지난해 3월 추가로 출연한 1억원으로 제정해 농생명과학 분야 연구·교육 발전에 공헌한 교수에게 시상하고 있다.

이번 상록연구대상을 수상한 河교수는 반추동물의 단백질 대사, 미생물에 의한 메탄가스발생 절감 등의 연구로 반추동물영양학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학술상을 받은 白교수는 작물유전학특론, 세포유전학 등 생명공학 분야의 연구에 탁월한 성과를 이뤘으며 현재 고품질 고수량성벼 개발에 진력하고 있다.

교육상 수상자인 金교수는 매 답당과목마다 현장견학과 팀프로젝트를 병행함으로써 학생들에게 현장감을 더해주기 위해 노력하고, 농업의 세계화를 위해 공헌한 점을 인정받았다.

음악대학

다양한 클래식 공연

음악대학(학장 鄭台鳳)은 지난 11월 한 달 동안 다양한 클래식 공연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모교 음대의 뛰어난 음악성을 대내외에 과시했다.

먼저 지난 11월 14일 서울 서초동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모교 음대 관악합주단이 창단 49주년 정기연주회를 가졌다. 특별히 鄭台鳳(작곡72-80)학장이 이 공연을 위해 작곡한 ‘관악합주를 위한 경복궁’ 초연작은 관객들의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또 지난 11월 23일 모교 관악캠퍼스 문화관 대강당에서 열린 음대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는 모교 교수들과 재학생들이 참가해 모차르트의 다양한 음악세계를 선보였다.

한편 말러 스페셜리스트로 유명한 모교 林熾政(작곡70-76)교수와 음대 심포니오케스트라는 지난 12월 12일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말러 탄생 1백50주년을 기념해 말러교향곡 9번을 연주했다.

이밖에도 음대 재학생들이 모교 학생처와 공동으로 지난 10월부터 12월까지 매주 화요일에 문화관 중강당에서 관악구 주민을 위한 ‘화요음악회’를 진행했다.

梁竣赫 야구선수

모교 강단에 서다

본회와 모교 스포츠과학연구소가 주최하고 야구부가 주관해 지난 11월 19일 관악캠퍼스 문화관 중강당에서 梁竣赫 前프로야구 선수의 강연회가 열렸다. <사진>

‘위기에 맞서는 담대한 도전’이란 주제의 이날 강연에서 梁竣赫선수는 삼성 라이온즈에 대한 애정과 만세타법을 만들게 된 사연, 야구계에 몸담아 있는 동안 겪은 일들과 느낀점을 재치있고



유쾌하게 담아내 참석한 4백여 명의 청중에게 뜨거운 호응을 받았다.

梁선수는 “사람들은 四死球에 별 관심을 두지 않지만 팀을 위해 열심히 뛰었다는 기록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사사구”라고 설명하고, “야구관련 기록 9개를 세웠지만 그 중 사사구 기록(1전3백80개)이 가장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며 공동체를 위해 희생하는 정신을 강조했다.

스코필드기념사업회

총회·학술강연회 가져

사단법인 호랑이스코필드기념사업회(회장 劉進)는 지난 11월 24일 관악캠퍼스 호암교수회관 마로니에홀에서 정기총회 및 학술강연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본회 孫一根상임부회장, 鄭雲燦 前국무총리를 비롯해 모교 수의대 權五鏡학장, 농생대 朴恩雨학장, 대학원동창회 李文漢회장 등 학내·외 인사 및 재학생 1백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프랭크 스코필드(한국명 石虎鵬) 박사의 서거 40주년을 맞이해 기념사업회가 정식 법인으로 출범하면서 그동안 사업회의 업무를 보고하고 향후 일정에 대해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劉進(금속공학68-72 KAI-ST 교수)회장은 인사말에서 “스코필드 박사는 우리나라 독립을 돕고 모교에서 어려운 학생들을 가르치고 후원하는 일에 여생을 바치신 분”이라며 “한국인이자라면 그분의 높은 뜻을 기리고 감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榮>

李光熙동문 스승명의
발전기금 2억원 출연



吳然天총장·李光熙동문

한국관광공사 기획관리본부장을 역임한 李光熙(지리59-63)동문이 모교에 발전기금 2억원을 쾌척했다.

발전기금은 지난 11월 9일 모교 관악캠퍼스 총장실에서 기금출연식을 갖고 李동문의 재학시절 스승인 故 陸芝修교수의 이름을 따 ‘陸芝修·李光熙 지리학장학기금’을 설립했다.

이 장학기금은 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와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학문적 성취가 뛰어난 재학생의 장학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李동문은 출연식에서 陸芝修교수와 각별했던 학창시절을 떠올리며 “기부를 결정하고 나서 모교에 빛을 갚는다는 생각에 기분이 좋았는데, 특히 존경하는 은사님의 이름을 이렇게 빛낼 수 있어서 뿌듯하다”고 말했다.

발전기금 주최

김선욱 피아노 리사이틀

모교 발전기금(이사장 吳然天)은 지난 11월 26일 관악캠퍼스 미술관에서 서울대인을 위한 ‘김선욱 피아노 리사이틀’을 개최했다.

이번 리사이틀은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김선욱 씨가 발전기금의 초청을 받아 예정에 없던 바쁜 시간을 특별히 할애해 마련됐다.

두산그룹 朴容晔회장

인문관 재건축에 50억원 쾌척

두산그룹 朴容晔(의학62-68)회장이 지난 11월 30일 모교 두산인문관 재건축을 위해 50억원을 발전기금으로 출연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이 기부금은 두산그룹 故 朴斗秉(경성고상 32졸) 초대 회장의 아호를 따서 지은 蓮崗기념관(인문대학 8동 강의실)을 재건축하는 데

사용된다.

蓮崗기념관은 본회 초대~4대 회장을 지낸 朴斗秉회장이 모교에 기부한 장학기금의 일부를 활용해 1974년 건축된 기업 기부관이다.

새롭게 지어지는 두산인문관은 강의실, 교수연구실, 세미나실 등을 갖춘 연면적 3천5백30㎡(약 1천70평) 규모로 지어진다.



吳然天총장·朴容晔회장



약학대학

2회 ‘발전기금 감사의 밤’

약학대학(학장 徐永鉅)은 지난 11월 22일 모교 관악캠퍼스 호암교수회관 컨벤션센터 무궁화홀에서 제2회 ‘발전기금 감사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朴亨根교무부학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徐永鉅학장의 환영사, 朴明珍부총장·鄭之碩동창회장의 축사, 金相建학생부학장의 약학대학 소개, 감사장 수여·발전공로상 시상, 축하공연 및 만찬 순으로 이어졌다.

徐永鉅학장은 환영사에서 “신약개발센터가 정부 지원과 건축 후원금으로 설게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앞으로도 약대가 오늘과 같이 세계 정상에 오를 수 있도록 물심

양면으로 도와달라”고 말했다.

모교 관악캠퍼스내 9천㎡ 부지에 지상 5층, 지하 2층 규모로 들어설 신약개발센터는 1백20억원의 정부 지원금과 20억원의 약대 발전기금으로 조성됐으며 내년 초에 착공해 2013년 완공할 계획이다. 이날 행사에서 40여 명의 기부자에게 감사장을 전달했으며 기업·개인별로 발전공로상을 수여했다. 발전공로상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기업 : 일동제약(대표 李金鎧 약학55-59·본회 부회장) ▲개인 : 삼공제약 金萬極(약학47-50) 회장, 신풍제약 張龍鐸(약학55-61)회장, 해나천연물신약 손선자 대표, 진생사이언스 김복득 대표



발전기금

개인 기부 컨설팅 세미나 개최

모교 발전기금은 지난 11월 17일 관악캠퍼스 연구공원 본관에서 국내 금융전문가를 대상으로 ‘PB(Private Banking)를 위한 개인 기부 컨설팅 가이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금융전문가들에게 구체적인 기부의 실행방법에 대해 문의하는 고객이 증가하고 기부와 사회공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전문가들을 교육하고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기획됐다.

발전기금 李明哲부이사장은 인사말에서 “성숙한 나눔과 기부의 문화를 조성한다면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 더욱 따뜻한 사회가 될

것”이라며 “이번 세미나를 시작으로 금융권에 계신 여러분이 우리와 함께 배우고 정보를 공유하며 논의하는 기회를 자주 만들자”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우리나라 대표 금융기관의 자산관리 담당자 30여 명이 참석했으며 1부에서는 우리나라 유일한 국제공인모금전문가(CFRE) Bekay Ahn 대표가 ‘Wise Giving, Giving Strategy and Giving While Living’을 주제로 강연을 했다. 2부에서는 발전기금 기획부 南相伯(동양사학 96-09)팀장이 모교의 기부형태를 중심으로 사회공헌 사례를 소개했다. (榮)

자연과학대학 학장에
수리과학 金明煥교수

모교는 지난 11월 1일 자연과학대학 학장에 수리과학부 金明煥(수학73-77)교수(사진)를 선임했다.

신임 김학장은 1954년 부산 출생으로 1982년 미국 오하이오주립대에서 석사학위, 1985년 동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미국 오하이오주립대 전임강



사, 한국과학기술대 교수를 거쳐 1989년 모교에 부임해 모교 교무처장, 대한수학회 대수분과위원, 아시아·태평양 수학올림피아드(APMO)의장 등을 지냈다.

柳仁鈞교수 연구팀, 아동 자폐 원인 규명

지난 11월 1일 모교 의과대학 정신과학교실 柳仁鈞(의학82-88)교수(사진)와 金志憲(의학98-04)박사 연구팀이 세계 최초로 아동 자폐증의 원인을 규명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팀은 자폐 아동 31명과 일반 아동 20명의 뇌영상을 자체 개발한 분석 프로그램으로 조사·비교한 결과, 자폐증이 편도체의 크기와 관련돼 있음을 발견했다. 편도체란 지름 2cm 정도의 아몬드 모양을 가진 뇌 구조체로 대인 관계와 정서를 관장한다.

자폐 아동의 편도체 크기는 일반 아동보다 10%가량 더 컸으며, 이는 주로 정보를 받아들이고 처리하는 편도체 세부핵인 측기저핵의 증가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柳仁鈞교수는 “형제 중 자폐아가 있으면 동생도 자폐에 걸릴 확률이 높지만, 3세 이하의 조기 진단이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며 “향후 추가 연구가 진행되면 편도



체 크기를 이용한 조기진단 도구 개발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는 자폐증이 뇌의 어떤 부위에 문제가 생긴 것인지 확인되지 않아 치료법이 없었으나 이번 柳교수팀의 연구결과로 치료법에 대한 기초 지식을 제공할 수 있고, 형제자매 사이에서 자폐증 발생 유무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연구는 미국 워싱턴대 방사선과 스티븐 데이거 교수팀과 공동으로 진행됐으며, 연구 결과는 신경과학 분야의 세계 최고 수준 권위지인 ‘일반정신의학회지(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최신호에 실렸다.

재학생의 소리



어려운 이웃 돕고 나누는 동아리

GIV는 ‘Global Intercultur-ing & Volunteering club’의 줄임으로써, 저희 동아리는 국제 자원봉사와 문화교류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GIV는 영어의 Give를 연상하게끔 만들어져, 어려운 이웃을 돕고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겠다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름에 걸맞게, 저희 동아리는 매 학기 방학마다 해외 봉사를 나가며, 최근에는 태국, 네팔, 캄보디아 등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파견하고 있습니다. 약 3주간의 일정동안 사람들은 교육 봉사, 노력봉사 등의 봉사활동을 하고, 한국문화 소개, 그리고 현지문화 배우기 등의 문화교류 활동도 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저희는 팀원들에게 글로벌 시민의식을 느끼게 해주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모교에 입학하자마자 GIV에 발을 들여놓게 됐습니다. 새내기 시절에는 깊은 생각

없이 그저 재밌어 보여서 들어갔던 것이었지만, 여름에 영어 캠프를 다녀오면서 나눔의 기쁨을 느낄 수 있었고,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과 이런 경험을 나누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이후로 2학기부터



집행부를 맡아 동아리를 위해 일하게 됐습니다.

지난 3학기동안 집행부로서 동아리를 더욱더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아직도 여러모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저희 동아리는 생긴지 5년, 중앙동아리가 된지는 4년된 신생동아리로, 긴 역사를 지닌 여타 동아리들에 비해 축적된 노

하우가 부족하다는 가장 큰 단점이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 때문에 저희는 매주 수 시간에 이르는 회의를 통해, 어떻게 하면 동아리를 더 잘 만들어 나갈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동창회보에 저희 동아리를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

金太運(수리과학09)
국제자원봉사동아리 회장

게 된 것에 감사합니다.

저는 앞으로 펼쳐질 국제화시대, 지구촌시대에서 글로벌 시민의식은 더 큰 시야를 갖게 해주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국내뿐만 아니라, 지구의 저편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는 것은 중요합니다.

金正勳교수, 선천성 백내장 치료기술 발견

지난 11월 2일 모교 어린이병원 소아안과 金正勳(의학92-98)교수(사진), 안과학교실 劉英碩(의학72-78)교수, 약학과 金奎源(제약학72-76)교수 등이 공동 연구를 통해 어렸을 때 시력을 잃는 소아 실명의 주요 원인인 선천성 백내장을 치료할 수 있는 기술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세포가 스스로를 먹어 치우는 ‘세포자식증(Autophagy)’이 유리체혈관 퇴행을 조절한다는 사실을 세계 최초로 발견했다.

지름 2.4cm인 우리의 눈은 둥근 공 모양의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 내부가 겔 상태의 투명한 물질인 ‘유리체’로 채워져 있다.

어린 나이에 이 유리체의 혈관 퇴행에 이상이 생기면 선천성 백내장이나 일차유리체증식증(태생 과정에서 퇴화해야 할 안구 혈관이 없어지지 않아 유리체에 혼탁이 오는 증상) 등의 질환으로 인해 실명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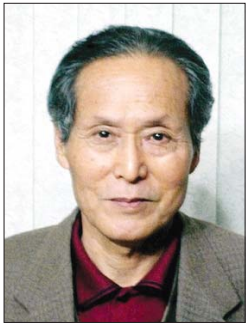
金正勳교수는 “소아 실명의 근본원인으로 안구 발생과정 중 유리체혈관 퇴행 이상이 제안됐으나 관련 연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치료기술 개발도 이어질 수 없었다”며 “이번 성과를 계기로 임상치료와 연구를 병행한다면 태어난 지 몇 년이 안 돼 시력을 잃는 희귀 질환에 대해 선도적인 치료기술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연구 결과로 그동안 희귀병으로 알려진 소아 실명의 주된 원인인 선천성 백내장과 일차유리체증식증 질병의 치료 기술을 개발할 수 있게 된다. (榮)

콩트 릴레이

이혼 연습

정 다 운(본명 鄭大秀)
(신대원67-70)소설가



박길남은 참 어처구니없었다.
아무리 세태가 변했다고 하지만 이렇게
까지 세상이 바뀐 줄 모르고 살았다니 눈
뜬 장님이 따로 없구나 싶었다.
막 구두를 신고 현관을 나서려는데 아내
가 따라붙었다.
- 말도 잘 안 하면서 왜 일이지?
그는 오늘따라 현관까지 나오는 아내를
보고 의아했다. 남편이 외출하는데 아내가
현관에 나와 인사를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
고도 자연스런 현상이라 새삼 말할 필요가

“

아내의 콧대를 꺾어놓으려면
이혼을 들고 나오는 수밖에 없다.
그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설마 자신이 그렇게까지
극단적이랄까, 배짱 좋게
나가리라고는 아내가 미처
생각지 못했을 것이다.
바로 그 점을 노려 아내의
약점을 치고 나갈 작정이었다.
집을 뛰쳐나온 김에 아예 나를
택하든지, 임플란트를 택하든지
마음대로 해보라고 선언하고
나섰다.

”

없는 일이다. 그런데 그는 새삼 무언가 있
는 모양이라고 생각했다. 이때 아내가 한
마디 던졌다.

“치과에서 임플란트를 해야 한데 3
천만원을 줘야겠어.”

“뭣이 어째!”

박길남은 순간 뒤통수가 뻗뻗함을 느꼈
다. 그러면서 눈앞이 캄캄해졌다. 속으로
뇌까렸다.

- 이 여자가 제 정신인가? 무슨 말을 그
렇게 한담...

마음 속 뒤통림이 거기까지 이르자 반사
적으로 한마디 툭 던졌다.

“고작 한다는 말이 그거야!”

“가정부도 1년 수당이 3천만원은 된다고
하던데 나도 그만큼 받을 권리가 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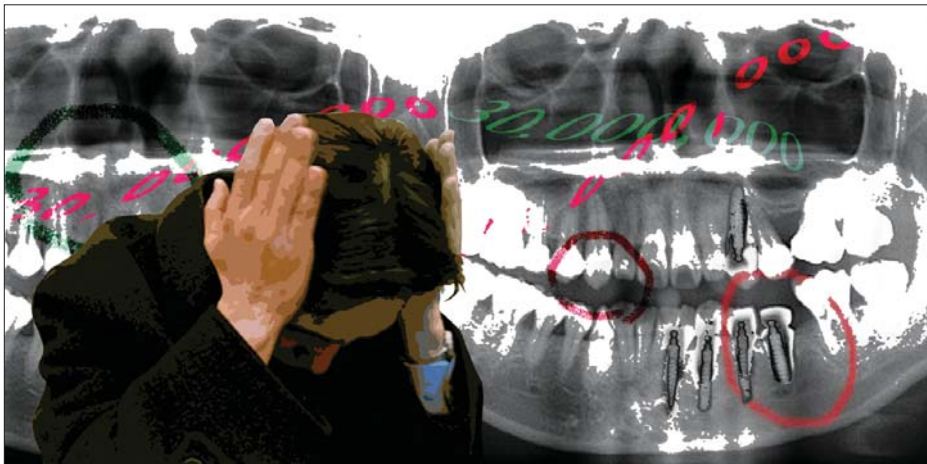
아내는 한마디 던지고는 너 알아서 해라
식으로 배짱을 내보이는 것 같았다.

평소 남편에게 말 한마디도 잘 안 하는
사람이 겨우 입을 연다는 것이 생뚱맞게 임
플란트 비용 3천만원이라, 그는 그 얘기를
듣고 흥두께로 한 대가 아니라 엄청 두들겨

맞은 것처럼 아랫도리에 힘이 빠져나가는
걸 느꼈다. 저렇게 똑심 좋게 나오는 그녀
를 자칫 잘못 상대했다가는 꽤 소리 한번
질러 보지 못하고 항복해야 할 지경으로 몰
리게 될 것 같았다.

그날부터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고
심을 거듭했다. 정년퇴직자 주제에 그런
엄청난 돈을 어디서 만들 수도 없고, 그렇
다고 가만히 있자니 아내가 막무가내로 나
올 것이 틀림없었다.

고놈의 임플란트가 화근이었다. 몇 년 전
만 해도 노쇠해지는 노인들의 이에 문제가
생기면 으레 틀니로써 해결하는 것이 상례
였다. 비용도 위, 아래 모두 해보야 3~4백
만원 정도면 된다고 한다. 임플란트 시술비
는 외국산을 쓸 경우 이빨 하나에 2~3백만



일러스트레이터 金多海 (서양화02 - 07)

원이나 되어 틀니 전체와 맞먹는다. 그런데
도 국산은 믿을 수 없다며 수입 외국산을
쓰도록 유도하는 경우가 흔하다고 한다. 임
플란트를 해야 하는 환자 치고 믿을 수 없
는 국산을 쓰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아내도 여기에 걸려들고 있는 중이었다.
그러나 그는 아내의 뜬금없는 태도에 대한
면역성이 생겨나서 호락호락 넘어가지 않
을 태세를 갖추고 있었다. 이번에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결판을 내야 되겠다고 생각
하게 된 것이다.

그는 오늘도 미치고 환장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다가 집을 뛰쳐나오고 말았다. 그
런데 그 뒤가 더 가관이었다. 마누라는커
녕 자식 한 놈도 전화 한 통 없었다.

- 이대로 비명횡사해도 모를 지경 아
닌가.

박길남은 울컥 하는 기분에 심사가 뒤틀
렸다. 자신이 길남이기는커녕 흉남이 되
어 버린 것이 아닌가 싶었다. 기왕 이렇게
된 바에야 한 가지 방법 밖에 없다고 생각
했다.

- 그렇다. 아내의 콧대를 꺾어놓으려면
이혼을 들고 나오는 수밖에 없다.

그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설마 자신
이 그렇게까지 극단적이랄까, 배짱 좋게

나가리라고는 아내가 미처 생각지 못했을
것이다. 바로 그 점을 노려 아내의 약점을
치고 나갈 작정이었다. 집을 뛰쳐나온 김
에 아예 나를 택하든지, 임플란트를 택하
든지 마음대로 해보라고 선언하고 나섰다.
그리고는 핸드폰 배터리를 빼버린 채 껌데
기만 들고 다녔다.

아내는 박길남이 행방불명된 걸 깨닫자
자식들에게 연락을 하고 경찰을 통해 수배
령을 때리는 등 호들갑을 떨기 시작했다.
그러나 소식이 없었다. 이쯤 되자 아내는
임플란트고 뭐고 다 귀찮다며 몸져누웠다.
그는 이혼하는 마당에 누가 누굴 찾는가 코
웃음을 쳤다. 고소한 생각마저 들었다.

아내가 이러한 남편의 심사를 어떻게 알
았는지 그에게 찾아와 하소연을 했다.

“나 당신에게 임플란트 얘기 안 할게 집
으로 가요.”

“나를 놀리나? 나는 당신과 이혼했잖
아!”

그는 한술 더 떴다. 이혼을 기정사실로
한 것이다. 이 말에 아내는 사색이 되더니
그녀가 서 있던 베랑에서 바다로 뛰어내렸
다. 박길남이 깜짝 놀라 고함을 질렀다.

“여보 안 돼!”

공중에서 대고 팔을 허우적거렸다. 그러
자 누군가 그의 팔을 잡았다.

“여보, 당신 피로하군요.”

아내가 침대 옆에 앉아 그의 이마에 흐르
는 식은땀을 닦고 있었다.

“아! 당신 괜찮아? 임플란트를 해야 한
다고 했잖아.”

“당신도 참, 내 이빨이 얼마나 좋은데
벌써 임플란트를 해요.”

그제야 박길남은 정신이 들었다. 악몽을
떨쳐 버리려고 화장실로 갔다. 세면대 거
울 앞에 서서 참 어처구니없는 꿈을 꾸었다
는 생각에 몸을 떨었다.

- 멀쩡한 아내를 두고 임플란트 때문에
이혼하기로 했다니...

수 년 전부터 치과의사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미국까지 가서 임플란트 시술과정을
이수했다고 하면서 광고를 때리며 잇몸이
약한 노인들을 유혹하기 시작했다.

박길남은 임플란트 열풍이 불자 한 도지
사 후보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노인
에게 임플란트 비용을 경감시켜주는 공약
까지 내걸었다는 보도를 텔레비전을 통해
봤다. 시류를 이용한 포퓰리즘을 보는 것
같아 심기가 몹시 불편했다.

“에이 뭐 저런 걸 가지고 선거공약을 내
거냐?”

“왜요? 노인들이 요즘 임플란트를 많이
하는데 비용부담 때문에 걱정들 하던데요.”

“명색이 도박이 되려면 지역발전에 관심
을 가져야 한단 말이야.”

“그래도 비용을 들어주면 좋지 뭐예요.”
“이 사람은 남 말을 못 알아들어.”

“뭘 당신만 잘 알아. 남을 무시하지 말
아요.”

임플란트 선거공약 문제가 엉뚱하게 부
부간에 자존심 싸움으로 번져가고 있는 것
이 아닌가. 해서 박길남은 이쯤에서 접어
야겠다고 생각했다.

“당신 왜 남의 말을 비꼬고 그래. 이제
그만해.”

“당신이 먼저 말을 꺼내 놓고 일반적으
로 그만하라고, 내 참 어처구니없네.”

“이 사람이... 뭐야!”

드디어 고성이가 나오고 말았다. 아내는
벌떡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임플란트 때문에 아내와 사이가 어색해
진 뒤 며칠 동안 영 기분이 개운치 않았다.
아내가 보이면 바로 보기가 민망하고 해서
의도적으로 딴 짓을 하는 체 했다. 아내도
같은 기분인지 괜히 부엌으로 들락거리는
것 같았다. 그러던 중 하루는 아내가 핸드
백을 들고나서며 한마디했다.

“나 임플란트 한번 해 볼까요?”

“응?”

- 이게 무슨 뜬금없는 소리가.

엉겨주춤하고 있는 사이 아내는 살짝 웃
으며 어깨 너머로 인사말을 던졌다.

“눈에 이상이 있는 것 같아 안과에 다녀
올게요.”

박길남은 임플란트가 무엇이길래 그럴
게들 야단인가 싶어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
봤다.

인터넷 어디에 들어가더라도 볼 수 있을
만큼 임플란트 광고가 사이버 공간에서도
활개를 쳤다. 굳이 임플란트를 해야 하는
이유로서 치아의 기능과 심미성, 저작(씹
는 동작)의 편안함, 전반적인 구강건강,
정확한 발음 등을 내세우고 있었다. 여기
에 나노플란트니 바로플란트, 숏플란트라
는 새로운 용어까지 등장하고 이에 맞설세
라 잇몸질환 치유를 위주로 한다는 푸코바
스 시술이라든지, 치아를 최대한 유지하며
시술한다는 이몰클리닉, 거기다가 분홍잇
몸클리닉 등 치과광고가 다종다양해 혼란
스러운 지경에 이르렀다.

이 바람을 타고 개인 시술 5천회 기록
보도, 임플란트 산업의 성장, 시도 단위의
임플란트특화산업 추진 등 임플란트를 둘
러싼 얘기가 꼬리를 물었다. 이런 관국에
양념을 칠세라 어떤 가수가 임플란트를 할
셈치고 생니 3개를 뽑아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로 말썽을 빚는 일까지 벌어졌다.

박길남은 임플란트신드롬에 주눅이 들
것 같아 아예 치과에는 가지 않고 살아갈
작정을 했다. 그런데 간밤 꿈에 임플란트
로 만용을 부리게 됐던 것이다.

그는 세면대 거울을 들여다보며 양치질
을 하려고 했다. 칫솔을 꺼내며 혼자 중얼
거렸다.

- 양치만 잘 하면 되지. 임플란트는 무
슨 임플란트야.

칫솔 위에 치약을 짜놓은 후 막 입안에
넣으려는데 잇몸이 이상했다. 순간 잇몸
부위를 만져 보고 입을 벌렸다 닫았다 해봤
다. 잇몸이 아팠다. 늘그막에 회고록을 써
본다고 밤잠을 안 자고 자료를 뒤적거린 것
이 무리했나 싶었다. 꺼림칙한 기분으로
양치질을 시작했다. 잇몸이 아파 양치질을
계속할 수 없었다. 양치질을 단념하고 우
두커니 서서 임플란트를 해야 하나 고개를
가우뚱거렸다.

동 정

수 상

▲具平會(정치47-51 E1 명예회
장·본회 고문)
=지난 11월 30
일 사단법인 한
미협회로부터 제
8회 한미우호상
수상.

▲李源國(화학공학55졸 KAIST
명예교수)=지난 11월 19일 제9
회 한국과학기술한림원상(공로부
문) 수상.

▲金南辰(행정51-55 前고려대 교
수·강원대 초빙
교수·대한민국
학술원 회원)=
지난 11월 19일
모교 호암교수회
관에서 제4회

牧村(金道昶)법률상 수상.

▲慶世浩(섬유공학53-57 가희 회
장)=지난 11월
18일 제24회 섬
유의 날 기념식
에서 금탑 산업
훈장 수훈.

▲鄭震權(국어교육54-58 한국체
대 명예교수)=지난 11월 22일 동
송학술재단으로부터 제14회 동송
학술상(공로부문) 수상.

▲宋相庸(화학55-59 한림대 명예
교수)=지난 11
월 19일 제9회
한국과학기술한
림원상(공로부
문) 수상.

▲李仁圭(식물55-60 모교 생명과
학부 명예교수)
=지난 11월 19
일 제9회 한국
과학기술한림원
상(학술부문)
수상.

▲盧榮煥(상학55-59 동일테크 회
장)=지난 11월
19일 제14회 금
형의 날 기념식
에서 철탑 산업
훈장 수훈.

▲白聖基(약학59-63 한신모방 대
표)=지난 11월
18일 제24회 섬
유의 날 기념식
에서 산업포장
수상.

▲金治洙(불문60-64 이화여대 명
예교수)=지난 11월 27일 大山
(愼鎬虎)문화재단으로부터 제18
회 大山문학상(평론부문) 수상.

▲申昌彦(법학60-64 율령종합법
률 변호사)=최근 보성교우회로부

터 제17회 자랑스러운 보성인상
수상.

▲吳世榮(국문61-65 모교 국어국
문학과 명예교
수)=지난 11월
19일 계간 '열린
시학'이 수여하
는 제3회 한국
예술상(시부문)
수상.

▲鄭玉子(사학61-65 모교 국사학
과 명예교수)=
지난 11월 30일
民世安在鴻선생
을 기리기 위해
제정한 제1회
民世賞(학술연
구부문) 수상.

▲金明石(의학62-68 모교 약리학
교실 명예교수)
=지난 11월 19
일 제9회 한국
과학기술한림원
상(학술부문)
수상.

▲金鍾信(기계공학64-72 한국수
력원자력 사장)
=최근 친환경
산업 육성 및 저
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한 공로로
환경부 장관 표

창 수상.

▲文相翕(화학공학64-68 모교 화
학생물공학부
교수)=지난 11
월 19일 제9회
한국과학기술한
림원상(학술부
문) 수상.

▲金秀勇(독문64-69 연세대 명예
교수)=지난 11월 12일 于湖(申
鉉禧)문화재단으로부터 제3회 于
湖인문학상 수상.

▲蔣舜樞(지질과학65-69 한국해
양연구원 극지
연구소 명예연구
위원)=지난 11
월 12일 재단법
인 雲巖(朴東
吉)지질학상 운
영위원회로부터 제37회 雲巖지질
학상 수상.

▲全熙天(철학65-72 헤이리에술
마을 이사장)=
지난 11월 19일
여성·문화네트
워크로부터 여성
문화예술인 후원
상 수상.

▲李京龍(무역65-69 서강대 교
수)=지난 11월 24일 大山 愼鎬虎
기념사업회로부터 제5회 大山보림
대상 수상.

▲금난새(작곡66-70 인천시립교
향악단 예술감
독)=지난 11월
3일 사단법인
淸樞祠로부터 제
13회 효령상(문
화부문) 수상.

▲金鍾勳(건축69-73 한미과스스
회장)=지난 12
월 1일 '2010
포춘 일하기 좋
은 한국기업' 시
상식에서 최고경
영자상 수상.

▲朱鎮吁(정치70-74 사조그룹 회
장)=지난 11월
15일 세계해양
포럼(WOF)이
수여하는 제4회
대한민국해양대
상 수상.

▲朴在東(화화76졸 한국예술종합
학교 교수·시사
만화가)=지난
11월 5일 한국
언론진흥재단에
서 제10회 고바
우만화상 수상.

▲李允聖(의학71-77 모교 법의학
교실 교수)=지난 11월 4일 제62
회 과학수사의 날 기념식에서 과
학수사 대상 수상.

▲李憲植(화학73-78 삼성코닝정
밀유리 사장)=
최근 친환경산
업 육성 및 저탄
소 녹색성장에
기여한 공로로
환경부 장관 표

창 수상.

▲沈慶昊(국문75-79 고려대 교
수)=지난 11월 12일 于湖(申
鉉禧)문화재단으로부터 제3회 于
湖인문학상 수상.

▲沈載震(화학공학76-80 영남대
교수)=지난 11
월 4일 경기도
일산킨텍스에서
열린 '2010 산학
연협력엑스포'에
서 공학교육혁신

에 기여한 공로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표창 수상.

▲金炯周(전자계산78-82 모교 컴
퓨터공학부 교
수·발전기금 상
임이사)=지난
11월 17일 제11
회 소프트웨어
산업인의 날 기
념식에서 국무총리 표창 수상.

▲魚吉秀(전자공학78-82 삼성전
자 전무)=지난 11월 17일 제11
회 소프트웨어산업인의 날 기념식
에서 산업포장 수상.

▲鄭在煥(금속공학78-82 중소기업
진흥공단 처장)=최근 친환경
산업 육성 및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한 공로로 환경부 장관 표창
수상.

▲金在政(화학공학79-83 모교 화
학생물공학부
교수)=지난 10
월 29일 제3회
반도체의 날 기
념식에서 기술개
발 유공자 부문
대통령 표창 수상.

▲朴性昌(불문81-85 모교 국어국
문학과 교수)=
지난 11월 12일
于湖(申鉉禧)문
화재단으로부터
제3회 于湖인문
학상 수상.

▲李相烈(계산통계82-86 모교 통
계학과 교수)=
지난 11월 5일
국통계학회로부
터 제5회 한국갤
럽 학술상 수상.

▲趙倬漢(계산통계83-87 하나금
웅지주 부사장)
=지난 11월 17
일 소프트웨어
산업인의 날 기
념식에서 대통
령 표창 수상.

▲玄鏡柄(행대원85-87 국회의
원)=지난 11월
25일 서울여성플
라자 국제회의장
에서 자유기업원
으로부터 자유경
제임법상 수상.

▲金빛내리(미생물88-92 모교 생
명과학부 교수)
=지난 11월 9
일 제5회 아모
레퍼시픽 여성과
학자상 수상.

▲文竣暎(사법89-96 부산대 교
수)=지난 11월
10일 林鍾國선
생기념사업회와
민족문제연구소
로부터 제4회
林鍾國賞(학술
부문) 수상.

▲李赫準(의학90-96 모교 외과학
교실 교수)=지난 11월 20일 제
62차 대한외과학회 학술대회에서
연강학술상(외과학부문) 수상.

▲張亨碩(일명 장훈·디자인학부
99-03 영화감
독)=지난 11월
8일 영화 '의형
제'로 제30회 한
국영화평론가협
회 감독상 수상.

▲조가현(기악02-06 바이올리니
스트)=지난 10
월 21~30일 이
탈리아브레시아
에서 열린 제12
회 국제바이올
린콩쿠르에서 한
국인 최초로 본상 2위와 현대곡
특별상 수상.

▲박칼린(대학원08졸 호원대 교
수·킥뮤지컬스
튜디오 예술감
독)=지난 11월
19일 여성·문화
네트워크로부터
'올해의 여성문
화인상' 수상.

▲李重根(AMP 5기 부영 회장)=
최근 스리랑카 교육발전과 양국 우
호증진에 기여한 공로로 스리랑카

정부로부터 '교육공훈훈장' 수훈.
▲朴長錫(AMP 45기 SKC 사장)
=지난 11월 20
일 한국국제경
영학회 학술대회
에서 글로벌
CEO상 수상.

▲李鍾泰(AMP 50기 퍼시스 사
장)=최근 친환경산업 육성 및 저
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한 공로로
대통령 표창 수상.

▲金正泰(AMP 59기 하나은행장)
=지난 11월 22
일 성균관대 출
신 언론인 모임
인성언회로부터
자랑스러운 성균
언론인상(대외
협력부문) 수상.

▲趙豐衍(AIP 36기 메타빌드 대
표)=지난 11월
17일 제11회 소
프트웨어산업인
의 날 기념식
에서 국무총리 표
창 수상.

▲김인현(AIP 37기 한국공간정보
통신 대표)=지난 11월 17일 제11
회 소프트웨어산업인의 날 기념식
에서 지식경제부 장관 표창 수상.

▲정해봉(SGS 17기 에코프론티어
대표)=최근 친
환경산업 육성
및 저탄소 녹색
성장에 기여한
공로로 대통령
표창 수상.

▲김종현(AIC 10기 위세아이텍
대표)=지난 11월 17일 제11회
소프트웨어산업인의 날 기념식
에서 국무총리 표창 수상.

▲崔炳五(AFB 3기 형지어퍼럴
대표·AFB동창
회장)=지난 11
월 18일 제24회
섬유의 날 기념
식에서 은탑 산
업훈장 수훈.

▲梁炯南(FIP 2기 에듀윌 대표)
=지난 11월 17일 대한민국 IT이
노베이션 대상 시상식에서 대통령
표창(유공자부문) 수상.

▲李性憲(ALP 9기 국회의원)=
지난 11월 25일
서울여성플라자
국제회의장에서
자유기업원으로
부터 자유경제임
법상 수상.

▲徐文源(섬유공학56-61 노스캐
롤라이나주립대
교수)=최근 한
국인으로 처음으
로 노스캐롤라이
나주립대 '찰스
A. 캐논' 석좌

인 사

교수에 임명.

▲俞東濤(잡사56-60 부운장학회 이사장·晶月 羅 蕙錫기념사업회 장·수원지부동창회장)=지난 11월 20일 정조대왕기념사업회 회장에 추대.

▲朴聖泰(의학58-64 前국회의원·한국음악협회 명예이사장)=지난 11월 4~10일 서울 예술의 전당에서 열린 G20 경축

대한민국 국제음악제 명예조직위원장

▲柳常悅(행정60-64 前건설교통부 차관·고속철도건설공단 이사장)=지난 11월 15일 한국감정평가협회 제12대 회장에 선출.

▲金仁浩(행정60-66 시장경제연구회장)=지난 11월 16일 공정거래위원회 지속 소비자정책위원회 제2대 민간위원장에 위촉.

▲李富榮(정치61-69 前국회의원)=지난 11월 22일 서울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열린 민주·평화·복지포럼 창립대회에서 상임

대표에 선출.

▲鄭正佶(행정61-65 前대통령실장·모교 행정대학원 명예교수)=지난 11월 18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행정학술원 총회에

서 국제회원에 추대.

▲李會晟(무역65-69 계명대 교수)=지난 11월 11일 아시아개발

은행의 기후변화와 지속가능한 개발에 관한 자문위원에 임명.

▲閔相基(경제66-70 모교 경영학과 교수·공적자금관리위원장)=지난 11월 5일 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 제4대 회장에 선출.

▲丁世鉉(외교67-71 前통일부장관·김대중평화센터 부이사장)=지난 11월 19일 원광대 제11대 총장에 선임.

▲文龍麟(교육67-71 모교 교육학과 교수·한국가톨릭교육자연합회장)=지난 10월 27일 임기 2년의 한국교육학회 회장에 선출.

▲吳志哲(법학69-73 前문화관광부 차관·법무법인 윤춘 상임고문)=지난 11월 22일 조선일보 방송부문 대표에 선임.

▲黃榮一(신대원70-72 CTS기독교TV 부사장)=지난 11월 17일 기독교IPTV 주주총회 및 이사회에서 사장에 선출.

▲安相洙(체육교육71-75 前인천광역시장)=지난 11월 29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국민통합 전국시도민연합회 창립총

회에서 대표총재에 선출.

▲安重鎬(외교71-75 모교 경영학과 교수)=지난 11월 10일 한국마

사회에서 열린 한국말산업학회 창립총회에서 초대 회장에 선출.

▲朴恩雨(농생물73-77 모교 농업생명과학대학장)=지난 10월 27~29일 고평에서 열린 아시아농과대학연합회(AAACU) 총회

에서 회장에 선출.

▲河榮帝(농업교육74-78 前농림수산식품부 제2차관)=지난 11월 4일 농수산물유통공사(aT) 사장에 임명.

행 사

▲李秀洪(정치49-59 문화시민운동중앙협의회장)=지난 11월 25일 부인 黃英金(성악50입)동문과 공동명의로 본회 장학빌딩 건립기금으로 1천5백만원 출연.

▲丘仁煥(국어교육50-54 모교 국어교육과 명예교수)=최근 수원시 매탄동 매원고등학교에서 '어떻게 꿈을 이룰 것인가'를 주

제로 특강.

▲李憲祖(철학52-57 前LG전자회장·고문)=최근 실학연구단체인 實是學舍에 현금 50억원과 20억원 상당의 주식 출연.

▲朴炳鎬(경제54-58 前한국외대교수·한국무역학회 고문)=지난 11월 10~15일 서울 인사동 라메

르화랑에서 서화 개인전 '三山展' 개최.

▲李在昌(법학56-60 새마을운동중앙회장)=지난 11월 24일 경기도 수원체육관에서 국내외 인사를 초청, '2010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개최.

▲林炯斗(중문57-61 SBS 사우회장·본보 논설위원)=지난 11월 24일 서울 목동 SBS에서 사우회 홈커밍데이 겸 송년의 밤 행사

개최.

▲李炯均(정치59-64 인하대 사회과학대학 객원교수·경향신문 사우회장·본보 논설위원)=지난 12월 1일 한국언론진흥재단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경향신문 사우회 송년의 밤 행사 개최.

▲李東春(행정59-63 前포스코 부사장·클라인텍 상임고문)=지난 11월 19일 서울 대치동 포스코센터 피닉스홀에서 編著 '테마로 보는 韓國史' 출판기념회 개최.

▲卞柱仙(영어교육60-64 한국아동단체협의회장·사대동창회장·본회 부회장)=지난 11월 8~11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21회 아동복지를 위한 국제포럼에 한국대표로 참석.

▲李祥義(약학62-66 국립과천과학관장)=지난 11월 19~21일 과천시와 공동으로 '과학과 꽃의 만남'을 주제로 제4회 전국꽃장식경연대회 개최.

▲李鍾協(기악62-66 중앙대 명예교수·협스트링 앙상블 음악감독 겸 지휘자)=지난 12월 11일 서울 여의도동 영산아트홀에서 협스트링앙상블과 함께 하는 영아티스트 콘서트 개최.

▲金勳東(농학63-69 수원예총 회장)=지난 11월 12~13일 강원도 횡성군 현대성우리조트에서 수원예술문화인 심포지엄 개최.

▲朴錫興(불문63-67 前경향신문 논설위원·건양대 대우교수)=최근 경술국치에서 李明博정부까지의 역사 논점을 정리한 '한국

근현대사 1백년의 재인식'(이담북스刊) 출간.

▲金東鎭(기악63-67 前경원대 교수·클라리네스트)=지난 12월 12일 서울 예술의 전당 리사이틀홀에서 金泳律(기악76-80 호르니스트)·郭貞善(기악90-94 바수니스트)·李倫定(기악90-94 오보이스트)등과 함께 세종목관 챔버 앙상블 정기연주회 개최.

▲郭明圭(사회64-68 트리플라인 사장)=최근 빌헬름 뮐러 등이 집필한 '노래하는 시집 슈베르트'(금사관刊)를 번역 출간.

▲金春玉(회화64-68 한국화여성작가회장)=지난 12월 1~5일 미국 마이애미에서 열린 International Asian Contemporary

Art에 초대돼 작품전시회 개최.

▲鄭奇溶(응용미술64-68 기용건축 대표)=지난 11월 12일부터 2011년 1월 30일까지 서울 세종로 일민미술관에서 '풍도, 풍경과의 대화'를 주제로 건축전 개최.

▲姜哲圭(상학64-68 서울시립대 교수·경실련 공동대표)=지난 11월 24일 서울 국회도서관 사회의실에서 '장기 요양제도 시행 2년 평가와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를 주제로 토론회 개최.

▲李鎭江(사대원68졸 방송통신심의 위원장)=지난 11월 25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뉴미디어시대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대책방안과 국제협력'을 주제로 국제컨퍼런스 개최.

▲李永鐸(상학65-69 세계미래포럼 이사장)=최근 미래사회의 특징을 키워드 중심으로 쉽게 풀어 쓴 '미래와 세상'(미래를 소

유한 사람들刊) 출간.

▲崔仁壽(조소66-70 모교 조소과 교수)=지난 11월 10~30일 서울 안국동 아트링크 서울에서 조각작품과 드로잉으로 전시회 개최.

▲劉進(금속공학68-72 KAIST 교수·호랑이 스코필드 기념사업 회장)=지난 11월 24일 모교 관악캠퍼스 호암 교수회관에서 호

랑이스코필드기념사업회 정기총회 및 학술강연회 개최.

▲金錫俊(토목공학69-73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장)=지난 11월 18~19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2010 서울 과학 기술포럼' 개최.

▲盧明鎬(국사71-75 모교 국사학과 교수·한국역사학회 회장)=지난 11월 19일 모교 관악캠퍼스 인문대학에서 '역사상의 수도와 별경'을 주제로 학술대회 개최.

▲安炳燦(신대원71-75 언론인권센터 이사장·본보 논설위원)=지난 11월 26일 충북 음성 매곡중·고교에서 학부모를 대상으로 '미디어와 인권에 대하여'라는 주제로 미디어 인권교육 실시.

▲金鉉燮(정치72-76 한국국방연구원장)=지난 11월 16일 '한·러 군사협력 20주년 평가 및 전망'을 주제로 제 10차 한·러 국방학술회의 개최.

▲安智煥(성악73-77 신라대 교수·그랜드오페라단장)=지난 12월 3~5일 서울 예술의 전당 토월극장에서 그랜드오페라단 창단 14주년 기념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 개최.

▲李基香(조소75-79 한성대 교수·한국패션문화협회 회장)=지난 11월 6~13일 서울 예술의 전당 한가람디자인미술관에서 국제 패션아트 비엔날레 개최.

▲韓貞淑(역사교육75-79 모교 서양사학과 교수·여성연구소장)=

지난 11월 22일 모교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 韓明淑 前국무총리를 초청해 '여성리더의 삶과 비전'을 주제로 강연회 개최.

▲朴錫享(동물76-80 이화여대 교수·한국환경교육학회 회장)=지난 12월 11일 이화여대에서 '기후변화시대의 물교육'을 주제로 학술대회 개최.

▲全範錫(의학76-82 모교 신경과 학교실 교수·대한파킨슨병 및 이상운동질환학회 회장)=지난 11월 12~13일 전북 무주 티롤호텔에서 '이상운동질환의 신경생리학적 이해'를 주제로 학술대회 개최.

▲郭錦珠(가정관리77-81 모교 심리학과 교수·한국인간발달학회 회장)=지난 11월 13일 모교 관악캠퍼스 멀티미디어 강의실에서 '학부모 지원을 위한 발달적 접근 : 한국 중년의 행복과 삶의 질'을 주제로 학술대회 개최.

▲金鎭國(정치78-85 중앙일보 논설위원·관훈클럽 총무·본보 논설위원)=지난 11월 17일 한국 언론진흥재단에서 金文洙 경기도지사 초청 관훈토론회 개최.

▲李相起(서양사학81-87 아시아기자협회 창립 회장·본보 논설위원)=지난 12월 2~5일 싱가포르를 방문해 정·관·재계, 언론계 인사를 만나 아시아기자협회와의 협력방안 협의.

▲韓熙結(기악84-88 인하대 강사·피아니스트)=지난 11월 2일

서울 신문로1가 금호아트홀에서 쇼팽 작품으로 피아노 독주회 개최.

▲崔芝妍(작곡90-94 모교 작곡과 강사)=지난 11월 12일 서울 부암동 부암아트홀에서 '은유II'를 주제로 창작작품 발표회 개최.

▲김나정(기악94-98 부천시향 제2수석·바이올리니스트)=지난 12월 14일 서울 신문로1가 금호아트홀에서 브람스, 바르토크, 블로흐 등의 작품으로 바이올린 독주회 개최.

▲서수민(기악97-01 앙상블 에클라 단원·비올리스트)=지난 12월 12일 서울 예술의 전당 리사이틀홀에서 모차르트, 베토벤, 브람스 등의 작품으로 비올라 독주회 개최.

▲유희정(성악96-02 소프라노)=지난 11월 7일 서울 세종문화회

관 체임버홀에서 요하네스 브람스, 에르만노 볼프 페라리 등의 작품으로 독창회 개최.

▲김진훈(기악98-03 대전시향 수석·바수니스트)=지난 12월 11일 서울 예술의 전당 리사이틀홀에서 비순 독주회 개최.

▲金敏運(AMP 33기 한국물가협회 회장)=지난 11월 4일 한국언론진흥재단 기자회견장에서 세계 평화실천운동 발대식 및 기자회견 개최.

▲薛勇洙(ACAD 53기 중앙노동경제연구원 이사장)=지난 11월 24일 서울 여의도동 한국노동연구원에서 한·중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 포럼 개최.

■ 참가 명부를 봅니다 ■

- ▲鄭震奐(경성사범39졸)=11월 8일 별세(93세)
- ▲沈遠澤(경성고상43졸 前조흥은행장)=11월 18일 별세(87세)
- ▲尹益錫(축산53졸 건국대 명예교수)=11월 3일 별세(87세)
- ▲許文會(농학48-54 모교 명예교수)=11월 24일 별세(83세)
- ▲申昌雨(정치50-57 前청주대 교수)=11월 26일 별세(79세)
- ▲李廷植(정치51-55 前국회의원)=11월 28일 별세(79세)
- ▲洪性翰(영어교육52-56 서인전고 교장)=11월 24일 별세(80세)
- ▲郭炳炆(섬유공학59-64 前밀알학교 실행이사)=11월 6일 별세(69세)
- ▲金基鐸(AMP 18기 삼화 명예회장)=11월 26일 별세(89세)
- ▲鄭世和(ACAD 12기 前요업개발 대표)=11월 15일 별세(75세)
- ▲辛再基(ACAD 18기 前국회의원)=11월 4일 별세(77세)

‘동정’난은 동문 여러분의 공간입니다. 많은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매달 24일 이전에 보내주시면 다음달 동창회보에 게재됩니다.

- e메일 : snua@paran.com 또는 snua1969@naver.com
- 전화 : 02)886-2219
- 팩스 : 02)886-2218

신 간

■ 인간의 인지

■ 변혁의 시대에서

— 鄭元植 지음



국무총리를 지낸 모교 교육학과 鄭元植(교육48-54 본회 고문) 명예교수가 최근 두 권의 책을 출간했다.

‘인간의 인지’는 심리학 분야에서 인지기능과 관련된 문헌과 연구 성과를 리뷰해 평소 궁금하게 생각하는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으려고 시도했다. 리뷰의 편의성과 용이성을 고려해 인지심리학의 주제체계에 따르는 검토를 했다.

‘변혁의 시대에서’는 모교 교수에서 문교부 장관으로, 뒤이어 국무총리에까지 오르는 등 화려하고 폭넓은 활동을 펼쳐온 鄭명예교수의 회고록. 해방 이듬해 청운의 꿈을 안고 고향 황해도를 떠나 38선을 넘어 서울로 온 한 청년의 소회를 시작으로, 여든을 넘긴 오늘날의 저자의 인생 궤적이 총 6개의 장으로 나뉘어 생생하게 펼쳐진다. <교육과학사刊·값15,000원/기과랑刊·값23,000원>

■ 倭の正体

— 姜吉云 지음



덕성여대, 충남대, 수원대 교수를 지낸 비교언어학자 姜吉云(국문 48-54) 동문이 일본에서 ‘왜의 정체’를 출간했다.

이 책은 왜가 가락국(임나가야)의 분국이었고, 가락국이 망한 뒤에는 백제의 분국이였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특히 任那日本府説의 허구성을 비교언어학적 관점에서 비판한 대목은 최근 한·일 양국이 임나일본부설을 폐기하기로 합의한 점을 감안할 때 외롭지만 선구자적인 연구가 아닐 수 없다.

이 책은 또 광개토왕비문, 이소노가미 신궁의 철지도 등 한·일 고대관계사의 쟁점을 비교언어학적 방법으로 명쾌하게 설명한 게 특징이다. <三五館刊·값27,300원>

■ 나와 서울대

중국어문학과 반세기

■ 위대한 중국의

대중예술 경극(京劇)

— 金學圭 지음



대한민국 학술원 회원인 모교 중어중문학과 金學圭(중문52-56) 명예교수가 두 권의 책을 펴냈다.

‘나와 서울대 중국어문학과 반세기’는 변화와 발전을 통한 수많은 혼란과 어려움을 극복하며, 여러 구성원들이 발전을 위해 공헌한 중문학과와 반세기 기록이다. 이 책은 저자 자신의 기록으로 서울대 중어중문학과와 과거와 현재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왔다.

‘위대한 중국의 대중예술 경극’은 중국 사람들이 이전부터 어떻게 얼마나 경극을 좋아했는지, 또 사회주의 중국에서는 봉건유산이라고 여겨지는 경극을 무엇 때문에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 <명문당刊·값10,000원/20,000원>

■ 테마로 보는 韓國史

— 李東春 편저



역사 읽기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클라인텍 李東春(행정 59-63) 상임고문이 주제별 한국사를 총망

라해 놓았다.

성신여대 겸임교수, 포스코 인재개발원장·부사장 등을 지낸 李동문은 역사를 관상하는 데서 더 나아가 생활의 일부로 생각하고 역사와 더불어 사는 곳에서 역사의 의식이 높아진다면 한국사를 보는 관점부터 한국사 개관, 사상사와 문화사, 봉당사와 사회사, 지배세력 변천사, 근·현대사까지 우리 역사의 줄기를 주제별로 나누고 각계 전문가들의 역저와 논문에 연대표까지 엮어 7백쪽 이상의 두툼한 책으로 펴냈다. <아이비북刊·값35,000원>

■ 47통의 편지(상)·(하)

— 崔尙圭 지음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유전자분석과장을 지낸 崔尙圭(동물63-67) 동문이 펴낸 장편소설.

공 연

■ 첼리스트 김시내의

아우름

— 12월 26일 예술의 전당

첼리스트 김시내(기악99-03 서울첼로앙상블 단원) 동문(사진)이

12월 26일 오후 8시 서울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에서 ‘Expression III - 첼로와 가야금의 만남’을 주제로 연주회를 갖는다.

독일 프라이부르크 국립음대 전문연주자과정과 트로싱엔 국립음대 최고연주자과정을 최우수로 졸업한 金동문은 이날 국내 작곡가들의 작품으로 뛰어난 연주실력을 선보인다. <공연문의:에인예술기획 586-0945>



■ 그 날

— 朴鍾圭 지음



폴리곤커뮤니케이션즈 朴鍾圭(응용미술 69-73) 회장이 9년간 집필한 글들을 창작집 ‘그날’이란 소설상자에 담아 출간했다.

차동문은 언제나 역발상적 사고로 크리에이티브한 변신을 꿈꾸고 주창한 작가다. 우선 책의 장정과 편집부터 눈길을 사로잡는다. 미대 출신답게 직접 그린 초대형 원화 작품(5.2X2m)의 조각을 표지 안쪽에 붙여넣은 2천권 한정판을 내놓았다.

이 책에 숨겨진 중심 테마가 그림의 테마이다. 차동문은 소설 쓰기와 더불어 소설 그리기 작업을 동시에 감행한 초유의 작가로 기록될 것이다.

11편의 단편소설마다 출간 전 먼저 읽은 독자의 짧은 독후평이 있는 이 책의 행간에는 등장인물의 감정이입이 시도돼 있다. <폴리곤북스刊·값12,000원>

■ 고깃배 그윽히

밀어내는 아침

— 安鎬元 지음



60대 칼럼니스트인 부천대학 安鎬元(HPM 6기) 객원교수의 시와 40대 사업가 민경두(데일리팝

대표)씨의 시평이 만나 ‘시가 나를 바라본다’는 부제처럼 시와 시평이 영적교감을 해가는 독특한 형식의 책.

1·2장은 인간의 굴레이자 축복인 ‘삶’과 ‘사랑’을 영욕의 잣대로 각을 세워 노래했다. 3·4장은 ‘사회’와 ‘역사’에 대해 대담한 낱말로 저항의식을 드러냈다. 5장에서는 이상과 현실, 희망과 좌절, 기쁨과 슬픔, 사랑과 증오, 초심과 교만 같은 삶의 편린들을 응축하

며 그 모두를 ‘포용’하는 시와 시평의 내적 대화들을 담았다. <논형刊·값10,000원>

■ 우리는 천국으로

출근한다

— 金鍾勳 지음



한미파슨스 金鍾勳(건축 69-73) 회장은 창립 초기부터 ‘꿈의 직장’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삼으며,

구성원 중심의 회사를 만드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해왔다.

이 책은 한미파슨스의 사례를 통해 직장을 천국으로 만드는 것이 불가능한 꿈만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앞으로의 천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음을 이야기한다. <21세기북스刊·값15,000원>

■ 내일도 내 삶은

눈부시다

— 이병욱 지음



대암클리닉 이병욱(ASP 10기) 원장이 직장

과 가정에서 흔들리기 쉬운 40대들에게 후반 삶을 위한 실천적 솔루션을 제공한다. 이 책은 전방전을 뒤흔고 있는 사람에게도 방향을 점검하게 하고, 이미 삶의 후반전에 진입한 사람들에게는 마지막 하루까지 의미 있게 살 수 있도록 돕는다. 각자 인생의 작전 타임인 하프타임에 점검하고 보살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정리해 주며, 하프타임을 통해 풍성하고 보람 있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 사례를 보여 준다.

심신의 건강과 행복한 삶의 방향과 방법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성장통을 앓고 있는 우리나라의 성숙한 변신을 위한 지침서가 돼준다. <대성Korea.com刊·값12,500원>

장학빌딩 ‘명예의 전당’에 새겨질 동문님의 건립기금 출연내역을 확인해 주세요

2007년 6월 25일 첫 삽을 들어 시작한 장학빌딩이 동문 여러분의 열화와 같은 성원에 힘입어 드디어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기금을 보내주신 분들의 고마운 뜻을 장학빌딩 내 명예의 전당에 새겨 영구히 보존하려고 합니다. 아래의 기준에 따라 수록할 예정이오니 본인이나 선후배, 동기분들의 납입 내용을 확인하시고 누락, 오기, 수정 내용이 있으시면 총동창회 사무실(02-702-2233)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8월 30일까지 약정하거나 출연해주신 분의 명단은 본보 9월호(제390호) 별지에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 이후 11월 19일까지 출연해주신 분의 명단을 이번 호에 게재합니다.

명예의 전당에 보존될 명판의 제작기간을 고려해 2010년 12월 말까지 모금을 마감하여 납입된 내용을 수록할 예정이며, 약정을 하신 분들은 최종 완납 확인 의사를 동창회 사무실에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게재순서는 ①금액별 — ②성명 가나다순입니다.
- 금액별 구분은 ①1억원 이상 (금액별) ②5천만원 이상 ③5천만원 미만~1천만원 이상 ④1천만원 미만~1백만원 이상 ⑤1백만원 미만 등 5개로 분류합니다.
- 수록내용은 금액별 구분 아래 ①성명 ②단과대학(원) 또는 특별과정(영문) ③입학연도 또는 기수 등 세가지 내용으로 수록합니다.
- 공동명의로는 성명을 함께 표기(△·)했습니다.

(2010년 8월 31일부터 11월 19일까지 출연 해주신 분)

- ◆1억3백30만원
△정충시(공대72)
- ◆1억1백만원
△김일환(문리64)
- ◆1억30만원
△박종일(공대47)
- ◆5천만원 미만
~1천만원 이상
△김경환(법대62)
△박영선(농대55)
△박옥주(사대50)
△박종국(농대57)
△박형기(치대55)
·정정해
△배종렬(상대61)
△신현웅(문리대64)
·한영자(간호대66)
△이상순(공대52)
·이신욱(공대52)
△이수홍(문리대49)
·황영금(음대50)
△이완기(사대45)
△이태섭(공대62졸)
△이현수(농대60)
△임휘운(법대62)
·김혜자(음대64)
△조원환(AMPP6)
△최경원(법대63)
△최병호(사대57)
△최진택(공대63)
△하부열(경영대74)
- ◆1천만원 미만
~1백만원 이상
△강규영(대학원79)
△강대진(ALP11)
△강영규(법대48)
△강충원(공대59)
△고동환(인문대77)
△곽찬호(신대원68)
△국상중(법대81)
△권기안(공대53)
△김동범(치대93)

- △김동신(수의대56)
△김명원(치대50)
·조세형(문리대49)
△김승환(상대67)
△김양일(공대56)
△김영남(공대66)
△김영선(법대55)
△김용섭(공대83)
△김일덕(법대56)
△김재동(공대70)
△김재영(공대82)
△김진희(약대55)
△김한주(약대57)
△노부호(공대65)
△류제원(공대85)
△문성우(법대75)
·엄윤경(가정대78)
△문찬국(공대73)
△문충실(환대원82)
△박병룡(사회대80)
△박태화(AMP1)
△박해도(ACAD66)
△방효정(사대55)
△성기점(미대58)
△송삼석(농대53)
△어 당(공대68)
△오강욱(상대56)
△오연준(약대56)
△우상선(공대72)
△왕규창(의대73)
△유원영(상대57)
△윤제용(공대80)
△이건개(법대59)
△이시묵(대학원52졸)
△이영만(HPM14)
△이영섭(공대59)
△이재국(상대59)
△이재식(법대70)
△이정규(공대64)
△이창형(자연대88)
△임동준(농대60)
△임민수(공대66)
△임찬용(치대60)
△장윤석(의대49)
△전상백(공대53)
△전성탁(사대54)

- △정근석(사회대87)
△정근원(사회대84)
△정남연(AMP21)
△정복래(사대54)
△정순영(사대56)
△정영의(문리대55)
△정재길(공대55)
△정지원(사회대82)
△정홍일(경영대05)
△조명래(수의대70)
△조영승(법대64졸)
△지현규(상대60)
△진홍일(문리대62)
△최 황(의대63)
△최병호(공대70)
△최재훈(법대94)
△최현림(의대73)
△한건표(사회대76)
△한상훈(공대52)
△한영옥(미대58)
△허종덕(문리대63)
△허현호(사대71졸)
△홍주현(가정대87)
- ◆1백만원 미만
△강경하(농대74)
△강대준(치대62)
△강영희(가정대77)
△고웅섭(사대54)
△곽영진(미대88)
△곽용태(미대61)
△구자흥(문리대56)
△권오신(SGS5)
△권혜자(미대62)
△기병태(상대53)
△김 훈(법대83)
△김경우(의대93)
△김달석(AIC25)
△김명규(문리대60)
△김명수(문리대54)
△김병민(HPM25)
△김사운(APC3)
△김상태(법대48)
△김성국(미대04)
△김성권(공대97)
△김수학(문리대53)
△김수환(공대69)

- △김승진(법대57)
△김영제(약대73)
△김영채(법대61)
△김용수(문리대59)
△김용술(문리대60)
△김용운(사회대88)
△김용태(자연대83)
△김재봉(공대69)
△김재혁(공대06)
△김정화(음대56)
△김주원(법대82)
△김준연(음대83)
△김항목(대학원69)
△김현희(인문대94)
△김호훈(수의대60)
△김화현(미대98)
△남상운(의대72)
△도용제(문리대61)
△류남렬(농대50)
△류재하(농대72)
△문기찬(의대67)
△문영모(문리대60)
△민경숙(AIC27)
△박 원(공대98)
△박 준(사회대00)
△박달이(간호대74)
△박상구(법대88)
△박소영(미대73)
△박원우(문리대50)
△박재철(법대61)
△박정호(사회대83)
△박제범(농대53)
△박진우(법대92)
△박찬욱(의대93)
△배기식(농대54)
△백문기(예술대46)
△백정기(상대71)
△서대교(대학원69)
△서영석(공대84)
△선덕영(의대전문49졸)
△손정숙(사대55)
△송석준(사회대83)
△신기전(경영대81)
△신대용(농대53)
△심재식(의대67)
△안국정(문리대63)

- △안기영(경성법학36졸)
△안상원(미대82)
△안용득(법대62졸)
△안윤선(대학원93)
△안재식(법대57)
△안준선(자연대88)
△안호선(사회대93)
△안호원(HPM6)
△양종식(공대80)
△유시락(사대57)
△유종필(인문대78)
·유대영(사대10)
△유지문(의대54)
△유준재(문리대61)
△윤봉한(상대64)
△윤지현(농대84)
△이계은(농대55)
△이규정(공대63)
△이규홍(법대63)
△이기태(사대59)
△이동복(문리대57)
△이동일(농대60)
△이매리(가정대84)
△이명규(문리대57)
△이방수(사대78)
·이지영(농대09)
△이봉길(상대58)
△이상철(의대52)
△이상순(공대54)
△이상식(GLP17)
△이상우(법대57)
△이상직(공대50)
△이상철(법대65)
△이상희(문리대62)
△이선영(인문대91)
△이수욱(농대55)
△이수홍(공대63)
△이승찬(농대55)
△이시우(공대65)
△이영순(상대64)
△이영주(가정대60졸)
△이오봉(사대61)
△이용섭(GLP18)
△이우영(법대90)
△이원규(상대56)
△이원철(수의대74)



조감도가 아닙니다! 준공을 앞두고 마지막 내부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는 장학빌딩 모습

- △이재홍(공대72)
△이정우(사대57)
△이조영(사회대85)
△이종신(치대70)
△이종일(농대68)
△이종호(사대59)
△이주호(사회대81)
△이찬복(사회대98)
△이창엽(사회대86)
△이조식(문리대54)
△이춘원(사대57)
△이충렬(경대원88)
△이태환(사회대94)
△이희열(문리대67)
△임병연(대학원72)
△임현진(문리대67)
△장경영(사회대92)
△전영길(환대원85)
△전재근(문리대56)
△전영표(문리대56)
△정기환(사대78)
△정두석(의대84)
△정미선(수의대91)
△정병욱(사회대78)
△정백기(공대76)
△정성효(사회대81)
△정연준(자연대90)
△조용섭(농대54)
△조용준(법대79)
△조학국(상대67)
△조한진(공대99)
△주현식(수의대73)
△차기현(약대59)
△차재호(문리대52)
△최동화(ACAD29)
△최동환(사대72)
△최병서(문리대71)
△최수현(공대65)
△최종현(경영대76)
△한상희(사회대98)
△한충수(공대98)

- △허 명(법대68)
△현호연(농대53)
△홍기범(사회대86)
△홍상현(공대02)
△황영옥(법대59)
△황윤태(공대02)
△황혜숙(사대69)
△차재세(비동문)
△스웨덴지부(한정우)

(본보 9월호(제390호) 별지에 게재된 명단 중 수정된 분)

- ◆1억원
△류중희(공대53)
·최준악
- ◆5천만원 미만
~1천만원 이상
△이재형(공대76)
·이승희(공대06)
△이창기(약대55)
·윤정혜(사대59)
- ◆1천만원 미만
~1백만원 이상
△배승환(공대54)
△장경만(의대80)
·최재선(간호대80)
△농사단(농대)
◆1백만원 미만
△강용식(음대96)
△류봉환(공대56)
△박종국(의대52)
△신동철(공대97)
·이홍지(인문대97)
△양준호(ALP11)
△윤순녕(간호대69)
△이종국(음대58)
△정대수(신대원67)
△정대유(미대61)

모교 사랑은 동창회비 납부로

2010년 10·11월 납부자 / 연회비 : 이사(10. 10. 19~11. 18)·일반(10. 10. 19~11. 18)
입학년도(미확인시 졸업년도) - 특별과정은 기수 표시

회 장 단

△회 장 林光洙=5백만원
△상임부회장 孫一根=1백만원
△부회장 鄭潤煥=1백만원
△부회장 吳仁錫=1백만원

평생회비

〈이사〉 △구본순 AIP39
△김갑산 AIP32 △김득하 AMP53
△김순덕 사대72 △김양곤 공대65
△김장연 공대76 △김정원 법대83
△김지철 의대86 △김태수 문리62
△김형태 법대76 △김희영 농대62
△남궁옥 자연72 △남기춘 법대79
△류제원 공대85 △민미란 생활81
△박노동 농대70 △박용섭 농대73
△박용호 ACAD48 △배효열 SPAR11
△손승태 공대67 △신두철 농대70
△심병연 법대73 △안순권 사회77
△원윤상 공대76 △육근열 行院81
△윤광선 AMPP23 △이관규 環院93
△이명주 SPAR1 △이상철 AFP4
△이승원 사대73 △이승렬 인문77
△이영무 공대74 △이용택 공대72
△이종만 농대75 △이중근 의대68
△이진우 상대61 △이철범 자연84
△이철취 사회72 △이해남 문리65
△이현봉 경영68 △전재희 상대54
△조육연 공대69 △조정현 공대82
△조한우 공대73 △진형인 문리66
△천성관 법대76 △최길룡 문리70
△한창범 AMPP5 △현소환 문리57
△황창규 공대72

〈일반〉 △강 명 약대64
△강선무 AIC28 △강성숙 AMP69
△강승주 공대70 △고창규 AIC23
△구자흥 문리56 △김광호 치대88
△김남훈 자연01 △김명자 간호05
△김병도 경영78 △김상호 법대72
△김선민 공대93 △김순란 AIP43
△김영렬 경영79 △김영옥 공대08
△김영채 농대65 △김용철 공대71
△김은진 간호99 △김재혁 공대06
△김정희 공대03 △김제성 環院78
△김종구 AMP69 △김종택 치대58
△김종훈 경영92 △김학천 AMP69
△김형목 공대69 △김호훈 수의60
△김희태 법대74 △도정섭 공대53
△박광배 법대82 △박무광 AIP43
△박일훈 음대75 △박지선 생활05
△박철우 사회91 △반영삼 공대77
△배옥남 CPN3 △배종훈 경영90
△석완주 경영86 △송현석 공대62
△송호장 사대75 △신용석 사회93
△신지영 공대03 △안영진 사회80
△안창호 AMPP9 △양승권 HPM7
△엄상미 사대84 △육윤형 사회90
△원근식 AIP43 △유원찬 AMP67
△윤명선 HPM18 △윤병양 공대52
△윤연희 생활55 △윤열현 AMP68
△윤정원 농대85 △이경훈 공대83
△이규홍 상대68 △이성만 사회75
△이성목 GLP17 △이승우 공대99
△이유진 자연00 △이익용 공대55
△이정호 공대92 △이종수 인문82
△이호창 의대95 △임윤태 사회88
△임종윤 의대68 △임현미 사대06
△장철승 공대97 △장호성 AMP69
△전홍수 약대54 △정복진 ACAD66

△정수봉 법대85 △정우철 공대98
△정지훈 수의00 △정희석 공대98
△조외현 농대82 △조한옥 사회84
△주승재 약대86 △지성배 경영86
△진문균 사회99 △채제민 수의05
△채지원 의대99 △최건섭 법대81
△최재유 AIC14 △최정열 법대82
△최홍식 공대96 △최희준 법대91
△한홍전 법대77 △현승진 인문99
△현준상 자연90 △홍경만 사대58
△홍은탁 공대81 △황진혁 의대89

이 사

◆인문대 △강창일71 △김학래74
△문상원72 △손예철69 △이동근76
△이종범72 △임미화83 △한봉희77
△허영재77
◆사회대 △김용숙76 △김종성81
△김준동80 △박 철81 △박성희75
△박종욱81 △방창식83 △유두선83
△유성엽80 △이종현73 △이주형72
△임 철75 △임유철84 △정봉교72
△정해영72 △조성원88 △차명진79
△최영선77 △한병승85 △홍석규75
◆자연대 △금종해76 △김양진83
△민영철74 △박윤경83 △신현철78
△이상영75 △이상옥83 △이철의75
△이한형73 △장대연74 △장성기72
△정철희75 △진 민78 △최진혁71
◆간호대 △김명숙61 △김신정73
△박상연68 △윤영희75 △정규숙84
◆경영대 △김성민81 △박종완71
△차순관72 △최재후74
◆공대 △강영훈72 △강희태58
△고갑석70 △곽정석50 △권상철74

△권오선79 △권용수81 △길계환82
△김경웅83 △김덕재54 △김도심52
△김동성73 △김명린61 △김명수73
△김문경61 △김병길64 △김신원64
△김연철67 △김영식66 △김용범70
△김은영56 △김종근54 △김종의59
△김종필70 △김주홍47 △김진영68
△김진의64 △김태업68 △김호용72
△나완수80 △남상률70 △남장수64
△문상재68 △문석형50 △문영기69
△민경택71 △박덕철57 △박승훈72
△박영복63 △박인균75 △박재종77
△박종택48 △박준창47 △박홍춘71
△박화규77 △배재흠70 △변영삼77
△서문호68 △손경업65 △손석광75
△손종권71 △손태원72 △송준영67
△신동식51 △신동주79 △신윤승74
△신철영70 △신희승71 △심이택57
△안사은57 △안용수73 △양 갑68
△오정일64 △오창석69 △오화석51
△옥영석78 △우상룡72 △우진태79
△유승준63 △윤양준78 △이건우74
△이경환83 △이동춘53 △이문화65
△이병하69 △이석형70 △이선계65
△이성규58 △이성팔72 △이승기70
△이여종68 △이영환76 △이원세71
△이원표72 △이윤표77 △이재욱61
△이재형76 △이재홍72 △이정만70
△이종훈53 △이창호55 △이한배60
△이희달70 △이희승60 △임 용79
△임민수66 △장진양67 △장학순46
△전석원83 △전웅진64 △전형식66
△정금영77 △정성환77 △정옥화52
△정형수59 △조명호78 △조응수74
△조장현64 △지성균71 △최병홍78
△최상오63 △최상현77 △최수현65

△최완철69 △최정혜86 △하태균86
△홍성표67 △황일인59
◆농대 △곽영철59 △권오진52
△김상호56 △김석한89 △김성린77
△김시한80 △김양재78 △김완기65
△김용상83 △김윤경70 △김일봉68
△김진오69 △김창성81 △김태수66
△김풍진71 △김현구50 △민경택88
△박기수71 △박동선58 △박선현71
△박순직63 △서광섭79 △서완수58
△서원호74 △손환규64 △신동수55
△신용석61 △양재승70 △왕진무60
△유문일66 △윤동원79 △윤여창53
△이건일60 △이미경74 △이병목64
△이병일57 △이삼희66 △이영권80
△이정재69 △이학재83 △이희석57
△이희수80 △임용택54 △장규섭61
△최락현61 △최주섭67 △최진규72
△한갑준52 △홍동선56 △홍석현77
△홍성표56 △홍행홍82
◆문리대 △권오득63 △권왈순65
△김문창61 △김선희68 △김영주70
△김정환61 △김춘석69 △김하석63
△남광성61 △문현석66 △박기덕70
△박동수46 △박범진60 △박성훈69
△박영배65 △박의송60 △박정무59
△박하진67 △박희준65 △방석기62
△배규한70 △북진태66 △서육식69
△성민선64 △손재국65 △양이훈65
△엄경일64 △유양수57 △이병기66
△이성덕56 △이용태63 △이원홍52
△이윤배67 △이정수59 △이정윤54
△이제훈58 △이철배59 △이형구59
△임정빈66 △정구훈65 △정명수64
△정소성64 △정연하61 △지경홍60
△최종무68 △한영우57 △홍영남60

△홍종호⁶² △황정식⁵²
◆미대 △권순형⁴⁹ △김영대⁶⁷
△김종선⁷⁴ △민철홍⁵⁴ △박재호⁵⁹
△안종문⁶⁰ △윤명로⁵⁶ △이동영⁷⁶
△이명기⁷⁶ △정종해⁶⁷ △조성애⁶⁴
△최명애⁷⁰ △한근석⁸¹
◆법대 △강대석⁶⁷ △경우근⁶⁷
△경종철⁶⁰ △고흥달⁶⁸ △구충서⁷¹
△김갑현⁵⁰ △김권택⁶³ △김기현⁷⁸
△김동건⁶⁵ △김민교⁸⁹ △김성길⁶⁰
△김수철⁷¹ △김승욱⁶⁰ △김승진⁵⁷
△김신택⁵⁷ △김연곤⁸⁵ △김영갑⁷⁴
△김운용⁸¹ △김응열⁵⁹ △김정삼⁷²
△김종일⁵² △김주영⁸³ △김준규⁷⁵
△김진환⁶⁷ △김정균⁵⁷ △김창희⁸²
△김태조⁵⁴ △김형성⁷⁹ △김호응⁷²
△나경원⁸² △노병수⁸³ △노태호⁶⁶
△문승우⁷⁵ △문영길⁵⁵ △민수광⁶⁰
△박 만⁷⁰ △박동섭⁶⁰ △박만호⁵⁷
△박상기⁵⁶ △박상전⁵⁷ △박성원⁸¹
△박승문⁷⁸ △박용수⁶⁸ △박인제⁷¹
△박준서⁵⁹ △박홍우⁷² △박휴삼⁶⁵
△박희태⁵⁷ △배용재⁷⁴ △변학남⁵²
△서승일⁶⁷ △서정석⁶⁵ △석광현⁷⁵
△성낙인⁶⁹ △성쾌문⁶⁰ △신영수⁷⁰
△신호철⁶¹ △안성희⁶⁶ △양승규⁵⁶
△양현주⁸¹ △오세빈⁶⁸ △오세희⁵⁸
△오연규⁷⁶ △우의형⁶⁶ △유 훈⁴⁹
△유남석⁷⁶ △유정호⁶² △윤동윤⁵⁷
△윤보목⁶⁶ △윤영철⁵⁶ △윤원만⁷⁹
△이건광⁸¹ △이경우⁷⁶ △이기웅⁵⁰
△이동명⁷⁵ △이문재⁶⁵ △이성범⁷⁰
△이성웅⁶¹ △이수영⁷⁴ △이인기⁷⁴
△이인상⁶⁰ △이재근⁸² △이재창⁵⁶
△이재철⁷⁰ △이진배⁶⁵ △이창복⁷⁴
△이충범⁷⁸ △이태장⁶¹ △임종훈⁷³
△임태수⁵⁶ △장상익⁷² △장윤기⁶⁹
△장준철⁶⁷ △전용학⁷³ △정경영⁷⁹
△정광우⁶¹ △정구영⁵⁷ △정대권⁷⁵
△정병섭⁵⁶ △정세용⁷⁴ △정해운⁵⁷
△정호영⁶⁶ △조남욱⁵³ △조용무⁶⁰
△조정규⁶⁸ △조현우⁶⁸ △차한성⁷²
△최병륜⁵⁶ △한경구⁶¹ △한경국⁵⁷
△한광수⁶⁵ △한승희⁵⁵ △현병무⁵²
△현순도⁶⁶ △황영하⁵⁸ △황의만⁷⁰
◆사대 △강경돈⁷⁰ △강영삼⁵⁹
△고영기⁷² △고영신⁷³ △곽형기⁷¹

△구영주⁷² △김남조⁴⁷ △김봉균⁶⁰
△김상현⁸¹ △김승재⁷¹ △김영애⁶⁴
△김용균⁶⁵ △김용진⁷⁵ △김재호⁵³
△김종원⁶¹ △김천수⁶³ △김학전⁵⁹
△나병삼⁶⁴ △문영식⁷³ △박남기⁵⁰
△박봉상⁵⁹ △박재공⁶² △박지모⁷⁷
△박태섭⁷⁶ △박효석⁷⁰ △박흥일⁶⁰
△서정선⁶⁰ △손영목⁶⁰ △송장섭⁶⁹
△신영준⁸¹ △신용래⁵⁶ △엄영주⁶⁶
△오지연⁸⁷ △유영재⁷⁰ △윤재봉⁵⁶
△이규석⁶⁶ △이민자⁵⁹ △이범국⁵⁵
△이상권⁸⁰ △이원강⁵⁷ △이재혁⁶³
△이준선⁶⁹ △이찬근⁷⁴ △인병식⁶¹
△정기탁⁷⁴ △정상권⁷² △정주섭⁵²
△조규권⁷⁶ △최동환⁷² △최병순⁶⁹
△최영상⁵⁶ △최현섭⁵⁹ △최희유⁶⁸
△표진이⁶⁶ △함오연⁶⁷
◆상대 △김국주⁶⁴ △김녀명⁶³
△김덕기⁵² △김동식⁶¹ △김명준⁶²
△김상남⁶⁶ △김중수⁶⁶ △김태겸⁷⁰
△김하두⁶⁴ △김흥배⁶⁶ △남상덕⁶⁹
△박 간⁶⁸ △박성석⁶¹ △박순일⁶⁹
△박영호⁶⁷ △박태하⁵⁸ △배경일⁶⁹
△배정운⁵⁹ △서영택⁵⁸ △서정도⁶⁶
△선종승⁷¹ △손상모⁵³ △송필호⁶⁸
△신세길⁵⁷ △신승철⁵⁹ △신정철⁶³
△안재전⁵⁶ △유석홍⁶¹ △윤우진⁶¹
△이광수⁵⁰ △이구수⁵⁷ △이봉서⁵⁵
△이용성⁵⁶ △이용휘⁵⁷ △이정재⁶⁵
△이찬민⁷⁰ △이철희⁵⁷ △이태환⁵⁸
△정 용⁶¹ △정재택⁵⁸ △정태웅⁶⁷
△조근목⁵⁵ △조문규⁵⁷ △조상호⁶⁹
△조영삼⁷¹ △조창제⁵⁷ △차태균⁷¹
△최 광⁶⁶ △최기동⁷⁰ △최명해⁶⁸
△최영환⁶⁰ △최준환⁶⁶ △표계영⁵⁸
△황 훈⁶⁸
◆생활대 △정영진⁶⁸ △조성교⁶⁹
◆수의대 △강경선⁶⁰ △김경환⁸⁰
△김계방⁶¹ △김윤수⁷⁴ △김인호⁵³
△나기식⁵⁴ △박종영⁶¹ △윤찬호⁶⁹
△이 준⁶² △이상만⁴⁸ △이원철⁷⁴
△조류익⁵⁹ △지차호⁷⁰ △하태흥⁸⁰
◆약대 △김동춘⁵⁵ △김장호⁶⁵
△김태현⁷¹ △박만기⁵⁹ △박승규⁵⁹
△배영일⁶⁰ △백성기⁵⁹ △신현학⁵⁶
△오연준⁵⁶ △원희목⁷³ △이법진⁸⁰
△장석윤⁷⁹ △장용택⁵⁵ △장학순⁴⁷

△조용현⁷⁴ △최명식⁶⁴ △최진곤⁷⁷
△한규흥⁶⁴
◆음대 △김광희⁶⁸ △민희경⁷⁷
△심선화⁷² △이선이⁸⁴ △이유희⁶⁸
△이준복⁶⁸ △최성희⁸⁰ △하주화⁷³
◆의대 △강세윤⁵⁹ △고원순⁶⁸
△김기락⁶⁸ △김명석⁶² △김병국⁶⁴
△김현우⁶⁴ △남상윤⁷² △노충희⁷⁰
△동영송⁴⁹ △박경환⁷¹ △박소배⁷²
△박효일⁵⁸ △손근찬⁵² △손기섭⁵¹
△신 실⁶⁰ △신기철⁷⁵ △유세화⁶⁵
△이명철⁶⁷ △이병훈⁶⁰ △이원로⁵⁶
△이응수⁶⁶ △이재경⁸⁴ △장경만⁸⁰
△전형식⁸¹ △정영덕⁷⁰ △정을삼⁶⁰
△정태완⁶⁴ △조강희⁵⁹ △조영희⁵⁶
△조환구⁴⁴ △주권량⁷⁶ △차인식⁷²
△최 윤⁷⁶ △최복식⁸⁴ △최영길⁵³
△추광철⁶⁰ △하일수⁷⁶ △하정훈⁷⁹
△한달선⁵⁸ △한홍무⁵⁶ △홍성환⁷⁶
△황대용⁸⁰
◆치대 △곽현희⁶⁸ △구창서⁵⁸
△김상철⁷³ △김종철⁷¹ △김종훈⁷³
△김홍석⁵⁹ △문복강⁶² △박기성⁵⁵
△박영길⁶⁴ △박우찬⁶⁸ △박찬유⁶⁵
△박창차⁶² △박형기⁵⁵ △백성기⁷¹
△백순지⁶³ △변석두⁵³ △서영수⁶⁷
△양수정⁸³ △양필수⁷³ △유재석⁷⁰
△윤화영⁶² △이봉재⁵⁶ △이상재⁷⁵
△이용오⁵⁶ △이종혁⁷⁴ △이진규⁷⁸
△임성수⁶⁰ △장상현⁵⁹ △장상현⁵⁹
△조달문⁶⁸ △진운수⁸⁰ △최양근⁸¹
△홍경택⁶⁴
◆대학원 △구경모⁷⁷ △김흥렬⁸¹
△문두길⁸⁷ △문형근⁷⁹ △박동준⁸³
△배명진⁸³ △양일석⁷³ △임병빈⁸²
△정기화⁷¹ △최원희⁸¹
◆경대원 △김선대⁷² △김정태⁶⁸
△김호봉⁶⁸ △유장규⁶⁷ △이상락⁶⁵
△장병희⁹⁰ △한기룡⁷¹
◆교대원 △송향섭⁶⁴ △장석민⁷⁰
◆보대원 △박원길⁶⁵ △박희서⁷⁷
△어수미⁸³ △이형구⁹¹ △황석전⁸⁰
◆사대원 △이원형⁶⁴
◆신대원 △유일상⁷² △유일연⁷²
◆행대원 △강윤원⁷⁷ △권기성⁷⁷
△남병홍⁷⁸ △남상우⁷³ △노일숙⁷⁹
△반금환⁷⁰ △오형국⁸⁵ △정여철⁷⁴

△최규학⁶³ △최상철⁶⁴
◆현대원 △권 완⁷⁶ △김배원⁸⁸
△김연명⁸⁵ △김혜천⁷⁸ △임동환⁸⁵
△정병환⁶⁹
◆AMP △김현수⁴⁵ △박수웅³⁹
△박순일¹³ △박인상²⁸ △심동보⁶¹
△양성욱¹ △육신학⁵⁷ △이경태³¹
△이규철⁴⁴ △이정식¹³ △정건택²¹
△정석현⁴⁴ △정연근⁵⁸ △조형수⁵⁸
△차문현⁶⁷ △최영보⁵⁵ △최호경²⁸
◆AIP △김동하²⁹ △김완희³⁴
△김원배¹⁹ △김익모²³ △여운창³²
△우영식²⁸ △위재근²⁷ △이상희¹⁵
△이충언¹⁴ △임자현³⁰ △정두영³²
△조성환²¹
◆ACAD △권영호⁶⁰ △김광철⁴⁷
△김기성⁵² △김종식⁶⁰ △박 현⁵⁵
△박명규⁴⁰ △박성득²⁰ △이관범²⁰
△이승재⁵³ △이왕열³³ △이종간⁵⁵
△이진삼²¹ △이진영⁵⁶ △장세환⁵⁶
△전종식⁷ △조주태¹⁴ △조홍규²⁶
◆ABP △이 명⁸ △이충원¹⁷
△이관철³
◆SGS △김승규⁷ △노영일¹¹
△이래원⁶ △최정희²²
◆APC △김복승³ △김종천⁷
△서정원⁹
◆HPM △류희근⁴ △박상동²
△안호원⁶ △오국진⁵ △윤귀남⁵
△이철희⁴ △장찬기⁸
◆AMPP △권영택⁸ △심부택⁵
△염재구⁶ △이경재⁶
◆AIC △김영배² △류진국¹
△박종렬³ △서희석¹⁶ △이일로¹
◆AFB △강복순² △김규태¹
△문제민⁴ △박흥식⁷ △정호민⁷
◆AMPFRI △김갑주³ △윤동노⁶
◆ACPMF △이영수³
◆FIP △안성훈¹ △양태운⁴
△이기준² △최승래⁶
◆GLP △강창석¹⁴ △김 설⁸
△노윤호¹² △손영수³ △양재길⁵
△윤석호⁷ △이흥순¹² △허정순¹⁴
◆ALP △양준호¹¹ △조강언⁶
◆SPARC △강정용¹¹ △김윤창¹¹
△김해명¹³ △민병찬¹⁴ △박성환⁸
△심재성¹² △정낙균¹⁵

◆ASP △장기원⁵

일	반
---	---

◆인문대 △강경수⁹⁷ △김대환⁸⁴
△김민혜⁰⁴ △김민호⁰⁰ △김영민⁹⁶
△김영홍⁷⁴ △김운룡⁸³ △김정호⁹⁰
△김호정⁰⁵ △박명식⁷⁷ △박종태⁸²
△박춘영⁸² △백창혁⁸¹ △서노원⁸¹
△성관정⁰⁶ △심윤남⁸² △우현아⁰²
△윤종욱⁰⁶ △이상용⁹⁸ △이언주⁹¹
△임채민⁷⁷ △정해경⁸³ △조연수⁸⁹
△조용일⁷⁷ △조현삼⁰⁰ △채민경⁰⁰
△광철호⁸⁰ △한상희⁸³ △한주형⁰⁴
△허 선⁰⁵ △허기원⁹⁸ △허유진⁰¹
△황진상⁹⁸
◆사회대 △고은아⁸⁵ △김동섭⁸¹
△김보년⁰³ △김보민⁹⁶ △김서유⁸²
△김석기⁷⁸ △김수영⁹⁸ △김연광⁸⁰
△김재이⁰⁰ △김정환⁹⁰ △김지용⁸³
△김학래⁹⁸ △김형일⁸³ △문영주⁰⁵
△민성원⁸⁴ △박병욱⁹⁷ △박수진⁰⁴
△박정언⁰⁵ △박종규⁹⁷ △백승준⁰⁰
△백승훈⁸⁰ △손영수⁸⁷ △송석준⁸³
△송호상⁷⁴ △신병주⁹⁵ △신병호⁷³
△신수연⁰⁵ △신흥순⁸⁴ △심혜인⁰³
△안상환⁷⁷ △양제열⁰² △위성일⁸⁵
△유승두⁹⁷ △윤계근⁷⁸ △윤소영⁹³
△은기수⁸¹ △이광오⁷³ △이동환⁸⁴
△이선아⁹⁷ △이용욱⁸⁶ △이은아⁹²
△이재덕⁷³ △이종교⁸⁶ △이지현⁹⁸
△이찬복⁹⁸ △이창구⁷³ △이창엽⁸⁶
△이한규⁹² △장성호⁸⁶ △장철호⁸³
△전상현⁹¹ △전상호⁸⁴ △전주현⁹⁰
△정달섭⁸¹ △정우진⁹⁵ △정우현⁸⁴
△정유석⁸² △정윤해⁰¹ △정진호⁰³
△정흥순⁹² △조대형⁸⁸ △최영환⁸⁴
△최유빈⁰⁵ △최형근⁷⁵ △함지원⁹⁴
◆자연대 △구형모⁸⁸ △권장영⁸⁸
△김계운⁸⁶ △김관식⁸⁴ △김욱래⁹⁴
△김재우⁶⁹ △김종훈⁸⁶ △김호신⁷⁸
△김효중⁸⁴ △노경진⁰⁶ △노형상⁰⁴
△박대열⁶⁸ △박영준⁹² △봉성율⁰⁴
△서재현⁰¹ △양일우⁷² △유영만⁸⁴
△이미선⁰⁸ △이승엽⁰² △이용희⁸⁴
△이은혜⁰⁵ △이정현⁰⁶ △장경우⁷⁸
△장원석⁹⁶ △전동오⁸⁴ △정민선⁰⁴

△정상원⁸⁹ △정승원⁹⁸ △조경덕⁰⁶
△조성일⁹² △조영길⁷⁴ △조유희⁸⁸
△채선규⁸¹ △최승우⁷⁴ △최영준⁸⁵
◆간호대 △김선영⁷⁶ △김성주⁸¹
△도혜경⁸⁵ △박소현⁹³ △박양자⁶⁰
△박용경⁸⁵ △박현자⁶³ △신선옥⁸³
△이미형⁸¹ △이상미⁷⁴ △이순임⁷⁵
△이영선⁷⁶ △임미현⁰³ △임정숙⁸⁴
△채영순⁷⁰
◆경영대 △김건수⁹⁴ △김기성⁷³
△김남식⁸⁴ △김동석⁶⁹ △김민수⁰³
△김성민⁰² △김아름⁰⁴ △김재환⁷⁹
△김종훈⁸⁶ △김준철⁸³ △김지룡⁸³
△김태현⁰⁶ △김혜민⁰¹ △나상호⁸⁵
△류승철⁸⁹ △모과균⁸⁴ △박봉호⁰⁴
△박상건⁸⁵ △박주선⁸⁶ △배재현⁸⁸
△서정호⁸⁸ △송준관⁹⁷ △신석영⁹⁵
△오주성⁸⁵ △오행연⁰⁴ △이용석⁸⁵
△조일환⁰³ △조호연⁰³ △천정일⁰³
△최신석⁹⁸ △최원일⁸⁹ △최진원⁸²
△홍득관⁹⁵ △홍용천⁸⁷ △황동철⁷⁵
◆공대 △강은구⁹⁷ △강태갑⁵⁹
△강태호⁰⁶ △강현종⁰³ △고근희⁵⁴
△고희동⁰⁴ △공석봉⁵¹ △곽병근⁶¹
△곽한우⁷³ △곽희로⁶¹ △구본익⁷⁸
△구본현⁷³ △구자호⁰⁰ △권경준⁹⁵
△권숙문⁵² △권오동⁶⁹ △권혁중⁸⁸
△권희택⁷¹ △김 영⁵³ △김강석⁰⁶
△김경준⁰³ △김계전⁵³ △김광열⁷⁹
△김규은⁴⁸ △김기준⁸⁹ △김기풍⁵⁰
△김덕원⁷² △김도원⁹² △김동관⁷⁵
△김동규⁵⁸ △김동규⁷² △김두현⁷²
△김방식⁴⁹ △김상돈⁵⁶ △김상원⁹⁴
△김생빈⁵⁴ △김성희⁸⁰ △김수환⁶⁹
△김신태⁶³ △김언기⁰⁵ △김유희⁵⁷
△김인송⁰⁵ △김재홍⁹⁹ △김정기⁶⁴
△김정철⁵⁵ △김주찬⁷⁵ △김주호⁵²
△김진복⁷¹ △김진욱⁹⁹ △김충은⁹⁹
△김태문⁵⁵ △김풍오⁶⁸ △김학기⁵⁰
△김형전⁵² △김형주⁰⁴ △나형주⁷³
△남지연⁰² △류세열⁸⁶ △문 광⁷⁰
△문경섭⁸² △문석준⁰⁵ △민승기⁸⁵
△박기병⁷⁴ △박대동⁰⁴ △박동환⁶⁷
△박명규⁶³ △박명준⁵³ △박상서⁸³
△박상혁⁵¹ △박수남⁶¹ △박영규⁵⁸
△박용택⁶³ △박용희⁰² △박의종⁶¹
△박재복⁵⁸ △박재서⁶⁵ △박종호⁷⁵

△박한희⁵⁶ △박현익⁷⁰ △박형선⁰⁰
△방교윤⁶⁴ △방현규⁶⁸ △백용현⁴⁸
△변동명⁵⁸ △변수근⁵⁷ △변영화⁵⁹
△변정근⁵² △서동식⁸¹ △서동영⁰⁴
△서두원⁰⁶ △서병우⁴⁸ △서병은⁵⁸
△서영석⁸⁴ △서영태⁰⁵ △서의석⁴⁹
△서정욱⁵³ △서준원⁹⁶ △손세근⁷⁴
△송기선⁰³ △송대석⁰⁶ △송대종⁵³
△송미화⁰² △송성진⁷⁷ △송완근⁵³
△송재극⁵² △송철상⁶¹ △송관상⁴⁹
△송현수⁰⁶ △송희국⁵⁵ △신동철⁹⁷
△신승철⁵⁴ △신원종⁷¹ △신재철⁶⁶
△신현식⁵⁰ △안석기⁰³ △안성종⁰²
△안우희⁶⁴ △안정기⁰³ △안정욱⁰²
△안주연⁰⁴ △안창범⁷⁹ △안호열⁴⁹
△양달수⁷⁹ △양우현⁷⁸ △양준모⁸⁵
△염다일⁹⁸ △염규섭⁵⁶ △오호석⁷⁴
△오희근⁸¹ △원경식⁷⁷ △원종석⁰⁴
△유건환⁵⁶ △유근중⁹⁷ △유병준⁰⁶
△유승규⁷⁶ △유완상⁶³ △유종오⁹⁴
△윤석용⁵⁰ △윤성영⁰⁴ △윤여경⁴⁸
△이 석⁴⁷ △이경하⁶⁶ △이경환⁶³
△이경훈⁶¹ △이규봉⁷⁴ △이기백⁴⁷
△이동규⁰⁸ △이동선⁶¹ △이동훈⁹⁹
△이병무⁶¹ △이병수⁵⁷ △이분수⁶⁴
△이상경⁶⁸ △이상준⁰⁴ △이상철⁷⁶
△이석재⁶⁸ △이성범⁹³ △이성훈⁸⁵
△이세도⁷³ △이세용⁸² △이수목⁷⁶
△이승아⁰³ △이승우⁰⁵ △이시우⁶⁵
△이시우⁸⁵ △이영상⁰⁸ △이영우⁵⁸
△이완상⁵² △이용석⁶⁷ △이용재⁵⁵
△이용훈⁴⁹ △이원복⁵⁰ △이유진⁶³
△이종수⁶⁵ △이종수⁸² △이주진⁷¹
△이창석⁹² △이창섭⁷⁰ △이창환⁸⁰
△이치용⁵⁷ △이태민⁸⁵ △이택봉⁷⁴
△이현진⁰⁶ △이호선⁹¹ △장병진⁵³
△장재호⁹⁶ △장지현⁰⁶ △전구현⁵⁴
△전명석⁸³ △전상수⁷² △전유정⁰⁸
△전준석⁷⁷ △정상구⁷³ △정상훈⁰⁵
△정용근⁸⁵ △정원배⁵⁹ △정재한⁰³
△정재현⁰² △정재호⁸⁸ △정진욱⁰⁰
△정형근⁷¹ △조기연⁰¹ △조득호⁶⁶
△조선용⁴⁹ △조용재⁵¹ △조재광⁸¹
△주경재⁵³ △주병국⁹⁸ △지태용⁵¹
△최광록⁰⁸ △최길영⁷¹ △최석주⁵¹
△최시정⁵⁵ △최정근⁶⁵ △최중식⁸²
△최하식⁴⁶ △최희정⁶¹ △하규성⁷⁶

△하상모⁹⁸ △한광흥⁸¹ △한대수⁷⁶
△한록희⁷⁸ △한만유⁸¹ △한용희⁰⁶
△한충수⁹⁸ △한태식⁷⁸ △현봉섭⁴⁹
△홍성표⁵⁸ △홍종우⁵³ △홍현성⁷²
△황보전⁰⁸ △황종열⁶⁹ △황준식⁰³
△황정정⁵⁹
◆농대 △강병석⁷⁰ △강용신⁵⁴
△강인석⁸¹ △강인섭⁷³ △계홍석⁹⁰
△공재환⁶⁸ △구자훈⁰² △권상대⁶¹
△권원중⁵⁶ △권태걸⁵⁷ △기순호⁶⁶
△김경선⁰⁶ △김규식⁶⁸ △김규식⁷²
△김동춘⁴⁴ △김명권⁸¹ △김명주⁸⁴
△김민근⁸¹ △김병주⁸¹ △김석희⁰⁰
△김신태⁸¹ △김승로⁰¹ △김연표⁵¹
△김영각⁴⁹ △김영옥⁶³ △김용관⁸⁵
△김원달⁶⁷ △김인기⁶⁰ △김재우⁶⁹
△김재윤⁶⁴ △김재인⁵⁸ △김정택⁷⁶
△김종성⁵⁵ △김준호⁸⁶ △김태규⁶¹
△김학면⁶⁴ △김한태⁸³ △김현호⁸⁴
△김휘전⁶³ △명을재⁸³ △문서상⁹¹
△박경제⁷⁰ △박동선⁸³ △박석호⁰²
△박순흥⁸⁵ △박원규⁸⁹ △박정근⁶³
△박정덕⁵⁵ △박정윤⁵⁵ △박진환⁴⁸
△박찬운⁹¹ △박태식⁶⁸ △방봉수⁶⁴
△백영빈⁵⁸ △서정연⁸² △선홍성⁹⁸
△손동하⁸⁸ △손병구⁶³ △손성호⁵⁸
△송경호⁵⁶ △송환창⁴⁶ △신민식⁵⁷
△신민중⁷⁹ △신정재⁵⁹ △심상래⁰²
△안희철⁶⁸ △양종성⁵⁷ △엄태영⁵³
△연장식⁸⁴ △유병두⁷³ △육승범⁰⁰
△윤여성⁷⁶ △윤종선⁸⁴ △윤창영⁷⁶
△윤창원⁶⁷ △윤현준⁰⁴ △이 흥⁶¹
△이계진⁵⁶ △이규형⁵⁰ △이길상⁰⁶
△이나라⁹⁸ △이대직⁴⁸ △이동구⁶⁶
△이무영⁸⁰ △이병근⁶⁷ △이상욱⁵⁶
△이석기⁶³ △이수연⁰⁸ △이영치⁶¹
△이영호⁶⁸ △이우종⁸¹ △이을룡⁵³
△이재원⁵² △이재형⁶⁶ △이지형⁶⁴
△이창규⁷³ △이형익⁶⁴ △인지웅⁵⁴
△임승룡⁵⁵ △장경우⁹⁷ △장우상⁶³
△장정동⁵¹ △전우방⁵⁵ △전현기⁶⁴
△정경진⁵⁵ △정병열⁶⁹ △정태삼⁰⁸
△조규환⁶³ △조비행⁵⁸ △조선호⁵⁴
△조재구⁸³ △조현수⁷⁴ △채혜인⁰⁶
△최신태⁵⁹ △최영근⁰³ △최영일⁴⁶
△최용현⁸⁰ △최진협⁵⁴ △한민수⁰⁵
△한휘석⁵⁷ △함대홍⁷⁰ △홍의표⁵⁸

△홍철선⁵⁸ △황재문⁶⁹ △황태상⁰¹
◆문리대 △강세원⁵⁶ △강신표⁵⁵
△강영원⁷⁰ △고문종⁷⁰ △고상빈⁵⁰
△고석진⁵⁷ △고인석⁵⁶ △구본룡⁶⁹
△구준옥⁵⁸ △권오광⁵⁹ △김근수⁶⁵
△김기근⁶⁹ △김기동⁶⁵ △김남진⁵⁹
△김동준⁶⁵ △김만옥⁵⁹ △김명환⁵⁷
△김봉영⁵⁸ △김상옥⁶⁸ △김성배⁵⁷
△김용달⁵⁷ △김윤철⁶⁷ △김인철⁶⁰
△김주만⁷² △김찬근⁶⁹ △김태동⁶²
△김해정⁵⁶ △김홍규⁶⁹ △남대극⁶³
△남성우⁵⁹ △남풍현⁵⁵ △노계원⁵⁸
△노만길⁵⁸ △박응철⁵⁷ △박중규⁶⁹
△박홍서⁶¹ △박희주⁵³ △방형윤⁵⁸
△배광선⁶⁶ △변재동⁵⁶ △서병국⁵³
△서병현⁵³ △성명제⁵⁴ △소광희⁵³
△송병찬⁵⁹ △신대철⁶³ △신충균⁵¹
△심양홍⁶⁴ △안원태⁵² △양승영⁵⁷
△오형조⁶¹ △우삼택⁶⁸ △우종택⁵⁴
△원인기⁶⁶ △유춘재⁶¹ △유희형⁶⁰
△윤홍로⁶⁰ △이규호⁷² △이대일⁶¹
△이동욱⁶³ △이상근⁵⁵ △이상흙⁵⁴
△이성화⁵⁸ △이영훈⁶⁵ △이우석⁵³
△이육재⁶⁰ △이정덕⁵⁵ △이종국⁶¹
△이종혁⁵¹ △이준희⁶⁰ △이진택⁴⁷
△이창훈⁴⁷ △이평우⁴⁸ △이현기⁵⁴
△인오룡⁷⁰ △장내식⁶⁵ △장영태⁶⁴
△정 탁⁵⁹ △정의성⁵⁷ △정춘영⁵⁰
△조상수⁶¹ △조원홍⁷¹ △조환영⁶⁸
△조희근⁷¹ △주순호⁵¹ △최경수⁶⁹
△최도희⁵⁶ △최용옥⁵² △최재원⁶⁵
△최홍근⁷⁰ △최희승⁶⁰ △표재명⁵⁴
△한명윤⁵⁶ △홍승호⁵⁷ △황경구⁵⁷
△황재운⁵³
◆미대 △곽한익⁵³ △김상진⁰⁰
△김지현⁰⁵ △김학두⁵¹ △김혜미⁰⁶
△니명희⁶⁶ △박석환⁵³ △박연선⁹³
△박윤정⁰⁶ △서동수⁸⁶ △손원잡⁶⁵
△손종목⁸³ △우상호⁸⁹ △원도희⁵⁹
△유영준⁵⁸ △정선화⁵⁶ △정치환⁶⁰
△최숙경⁵⁹ △황완숙⁸²
◆법대 △강군우⁶⁷ △강금실⁷⁵
△강명식⁶¹ △강상진⁸⁷ △고건호⁷⁸
△고영한⁷⁴ △고의중⁹¹ △공영규⁵⁹
△곽노현⁷² △곽정출⁵⁷ △곽창욱⁵⁸
△구남수⁸¹ △김광주⁶² △김광훈⁷⁹
△김기남⁰² △김기석⁵⁹ △김낙훈⁹⁹

△김남수⁶⁴ △김대영⁷¹ △김두표⁶⁹
△김범수⁸² △김상근⁹² △김상균⁷⁷
△김상태⁴⁸ △김세돈⁷² △김소연⁰¹
△김소연⁰¹ △김시형⁵⁸ △김양섭⁹⁰
△김영기⁶⁶ △김영선⁵⁵ △김용덕⁷⁶
△김용현⁷⁴ △김용환⁵² △김원철⁶⁶
△김율섭⁵⁶ △김재구⁶⁸ △김재수⁵⁹
△김정균⁷⁶ △김종국⁶⁵ △김종률⁸¹
△김종욱⁸⁴ △김주원⁸² △김준영⁹⁹
△김창기⁵¹ △김학수⁶⁵ △김현영⁶³
△김형두⁵² △김호철⁸⁵ △김황식⁶⁷
△노용희⁴⁸ △문해성⁵⁸ △박병연⁶⁷
△박옥만⁶⁵ △박재원⁵⁵ △박재현⁰⁰
△박종순⁵⁴ △박찬문⁸⁷ △박한채⁶⁶
△박형남⁷⁸ △배성범⁸⁰ △배찬린⁵⁸
△백준현⁷⁸ △서동희⁸⁰ △서정찬⁸²
△손승우⁰² △송민호⁹⁷ △송재양⁷⁷
△신 신⁵⁵ △신근식⁶³ △신완수⁵⁴
△심훈종⁵⁶ △안기영³⁶ △안영수⁸⁴
△안철환⁵⁷ △어수용⁸² △어용선⁷⁵
△오정면⁸⁶ △오형석⁰⁴ △오형환⁶⁵
△오홍주⁷⁰ △우영화⁶² △유창배⁷²
△유해돈⁵⁵ △윤우진⁷¹ △윤장석⁸⁹
△윤정석⁵⁵ △은현호⁸⁷ △이근윤⁷⁶
△이명순⁸⁵ △이미희⁰⁰ △이병무⁵⁷
△이석범⁵² △이석수⁸¹ △이선우⁷⁴
△이성규⁹² △이원진⁰⁵ △이재덕⁸²
△이정민⁸⁸ △이종문⁵⁶ △이준규⁷²
△이지은⁹⁶ △이채주⁵³ △이철승⁷⁸
△이춘근⁵⁷ △이학무⁵⁵ △이현규¹⁸
△이희정⁹⁴ △임승언⁵⁶ △임준호⁷⁷
△장재윤⁸² △장지용⁹⁷ △전창영⁷⁴
△정광명⁹² △정덕모⁷⁵ △정재일⁵²
△정학철⁶⁴ △조경래⁵¹ △조남현⁵⁴
△조병직⁴⁶ △조성기⁶⁸ △조세연⁵³
△조승우⁹⁴ △조용원⁹⁸ △조윤희⁸⁶
△조재건⁸² △조주현⁹⁵ △조혜현⁸¹
△조현수⁷⁸ △지원훈⁶¹ △채승우⁸⁸
△최석원⁰⁵ △최석정⁶¹ △최세윤⁰¹
△최영홍⁷² △한영광⁶³ △한영표⁸⁶
△한찬식⁸⁶ △함석재⁵⁷ △형대우⁶²
△홍성계⁶⁰ △홍종현⁶⁴ △황인정⁸⁰
△황철규⁸³ △황활웅⁶⁷
◆사대 △김은재⁴⁵ △김종욱³⁹
△강길선⁵⁷ △강명순⁶³ △강신포⁶⁸
△강신희⁵⁵ △고웅섭⁵⁴ △구나영⁰³
△구수연⁸⁷ △권경안⁸² △권오현⁷¹

△권정순59 △김윤상99 △김기련02
△김동근01 △김명수68 △김문수71
△김미정83 △김성곤49 △김성태54
△김세영46 △김수신60 △김수연87
△김수자68 △김순동56 △김신일59
△김용선67 △김우탁57 △김은숙51
△김재철71 △김재혁50 △김재홍66
△김재흠73 △김주현57 △김증자61
△김진우02 △김태영60 △김필수57
△김형주50 △김효정05 △노재현77
△문일성53 △문정대53 △문정매03
△문제세71 △민영업55 △박경은67
△박광국82 △박규완71 △박기석65
△박노학50 △박문수74 △박상근52
△박상욱02 △박영배54 △박영자46
△박정자54 △박종대52 △박희문56
△방영선75 △배병일58 △백춘현97
△서수현51 △서아영05 △성시연01
△손낙철49 △송복주53 △송재식49
△신동진03 △신상인03 △양기대81
△어 영51 △오건오81 △오만원64
△오세왕67 △유석렬58 △유성수74
△유승연73 △유양욱75 △유영선86
△윤인식65 △이규환46 △이방렬65
△이병순67 △이병주54 △이보식53
△이상경65 △이상구84 △이상규79
△이상철59 △이성구64 △이성진53
△이승우61 △이시훈57 △이영애67
△이윤상69 △이윤하63 △이인희61
△이재근86 △이제용60 △이종철75
△이주혜89 △이진구71 △이창국60
△이현순53 △이희환56 △임 혁86
△장영호77 △장완배61 △장유미99
△장혜정01 △정경섭64 △정덕영62
△정덕자69 △정복래54 △정복임60
△정봉우79 △정봉채58 △정수만71
△정택영85 △조도근57 △조민식55
△조병완53 △조선형59 △조정휘60
△진명희78 △차은진05 △최진복75
△하광언60 △홍운표54 △홍학순53
◆상대 △강문수67 △강정구61
△권만식65 △권태명58 △권혁대49
△김규현52 △김대식70 △김동휘48
△김두산57 △김상렬64 △김선정54
△김용민70 △김용은53 △김윤환67
△김이규50 △김재진54 △민용식60
△박두섭56 △박명배64 △박명식59
△박인규70 △박인석48 △박종한49
△박종후54 △박좌용48 △박지중66
△박풍아62 △배지열50 △변원욱49
△성락후63 △손성철50 △송재관66
△신영일61 △신인수53 △양태진67

△오상봉70 △유수길60 △유희선65
△윤록현59 △윤영원55 △이기용56
△이기주46 △이기철55 △이상호57
△이영세44 △이영호46 △이종렬49
△이종명70 △이준철55 △이학영54
△이호철57 △장기남61 △장태익66
△전장원56 △정기완52 △정문화71
△정하용65 △조규용53 △조기완65
△조선웅51 △최재만62 △최충호52
△최철현53 △탁승호65 △한일상61
◆생활대 △김미현02 △김순오55
△김양희05 △김지연88 △김지현04
△류국영84 △박주희85 △배수향90
△오광숙60 △오명숙70 △이미자81
△이영자65 △이예영93 △이용호78
△이정호98 △이지현04 △이진경02
△조정자61 △조혜경70 △최미연79
△최윤정84 △최형운05
◆수의대 △강구환74 △강상욱90
△구자록88 △김병기68 △김영무60
△김재권62 △김종태64 △명수남54
△방효범55 △서동일55 △서세일76
△서정기78 △서창우63 △송희락70
△유병문67 △이경환60 △이상직51
△이인섭71 △이재진59 △이학범06
△임미애06 △임춘기77 △정정현59
△조영선78 △조용호83 △조충호49
△주찬용63 △최귀철77 △최영일52
△홍상희82
◆약대 △강기훈64 △강희경84
△김병근53 △김상범08 △김숙경06
△김영일65 △김종윤53 △김중선57
△김혁민07 △김홍숙73 △김희정83
△남기혁52 △박건치61 △박경래57
△박기숙86 △박문식57 △박성원93
△박영선50 △박윤주84 △박찬기56
△박천형06 △성태현70 △소병규09
△양승국53 △양영자51 △육지완55
△우제안57 △이갑열53 △이선구90
△이영주08 △이진규79 △이태원73
△이해정46 △이형연77 △이훈자56
△임현정68 △장승엽74 △정연심54
△정종한73 △정철영65 △조은정00
△주춘대54 △주학유70 △최기철53
△최문정77 △하성상58 △한만봉81
△한병훈52 △한지연08 △홍순태67
△황환상53
◆음대 △김기홍80 △김나아91
△김수연94 △김윤지05 △김지혜88
△김태정86 △김한식68 △박수전71
△서은령80 △석종환51 △성양자60
△송복자84 △안희정85 △염태현04

△윤이근74 △이강은02 △이근호53
△이민나00 △이신희70 △이영희83
△이종석72 △이준성81 △장수영03
△장우형72 △장해리82 △정소라99
△정혜경00 △최문진73 △최영택74
△홍비자60 △황수아98
◆의대 △고종현74 △곽계혁96
△김민석84 △김도정95 △김석익06
△김선민00 △김수경81 △김연수95
△김용식71 △김창범70 △김청수68
△김태현91 △김형규55 △김혜림06
△김홍숙03 △류인근82 △박용화55
△박증원77 △백성현56 △변영찬76
△변종훈69 △설보람06 △송만준57
△신광일59 △신상구68 △심재식67
△심정연85 △심태섭56 △안태원83
△오석환45 △유언호54 △유종찬96
△윤경선63 △윤용수65 △이봉화51
△이상일75 △이상준60 △이원기56
△이재식81 △이정하02 △이종주57
△이주혁74 △이준석96 △이지혁95
△이철현67 △이희발59 △임경환01
△장수진06 △장학진64 △장호조61
△전동수44 △정재욱02 △채희동86
△최완주73 △최진숙78 △허 훈46
△홍성룡69 △황성주77
◆치대 △강민선67 △고영식68
△김경현87 △김광주67 △김광현52
△김명원50 △김병준68 △김영근48
△김용상61 △김종배58 △김철위57
△김평일72 △김현진56 △나병선69
△노태래63 △문형주79 △박승오62
△박용세60 △박재용98 △박주태70
△박태원58 △백정화86 △서성구74
△성영환59 △송재용82 △심정민87
△안 박60 △안병관52 △안성모68
△안순찬83 △엄인웅78 △오안민60
△왕상현53 △유병현07 △유세정51
△이공립70 △이규송58 △이만희83
△이병윤51 △이병윤53 △이병현76
△이상명69 △이상진56 △이성근70
△이성출70 △이인경82 △이장훈57
△정지혜94 △정형태74 △조영호65
△주관철59 △최남섭73 △최승은63
△최재인75 △하상완64 △한영복58
△한우석76 △한기용77 △호창진55
△황성립86
◆대학원 △가순일94 △고병순81
△고재필93 △김경진84 △김명철81
△김용구80 △김진우86 △문재석80
△민경부84 △박용희62 △변종영71
△손상익85 △송윤경96 △염시창83

△원종국86 △윤경섭89 △이범수85
△이상용88 △이용범82 △장승재83
△정병희52 △조석준57 △최양석04
◆경대원 △박영희90 △손영수68
△유민철71 △이범신69 △이용석93
△이충렬88 △이태민96
◆MBA △나상준09
◆교대원 △김영화74 △김충기64
△심수정71 △정월용73
◆보대원 △김귀향79 △김주희72
△김한상84 △박승기82 △방옥근85
△배운영07 △신금호72 △신기준64
△이경연71 △이양재61 △이진경71
△정두채80 △정상조67 △조순섭99
△조춘국84
◆신대원 △김해성71 △서강화74
◆치대원 △고재일06 △권순모06
◆행대원 △김영관65 △김용국74
△김재윤83 △김정중94 △노선호68
△박완신77 △배용태83 △송하진81
△안병주67 △이경훈76 △이기섭77
△이석암78 △이종련68 △임세환71
△임종섭77 △장승태61 △허성두71
◆환대원 △강대욱07 △박유정90
△신언교87 △이정택02 △이춘택71
△전상훈83
◆AMP △강병연1 △고시목8
△곽덕근54 △곽병구17 △금승호58
△김 반46 △김광석37 △김기석64
△김동열40 △김상규62 △김선동28
△김선제27 △김영재36 △김영훈49
△김용석60 △김우경58 △김우전7
△김일갑48 △김종대59 △김형래68
△김홍두53 △노용환68 △노재근42
△류대경69 △박병희61 △박유덕67
△박종덕64 △박종일44 △박찬엽40
△박홍래10 △배신희34 △서재희25
△성낙주69 △성백진36 △성하룡32
△신명철8 △신사현67 △신영주42
△신용무26 △오경수68 △왕기철42
△우상우18 △우영태40 △우태명5
△유병운23 △유종석57 △유진석32
△이규환41 △이기종43 △이반우52
△이성길34 △이수중26 △이승준69
△이재민63 △이찬국46 △이하우69
△이현섭22 △임창섭14 △장명웅40
△장영섭14 △전용우65 △전이수54
△정달영8 △정덕모66 △정하택23
△조창식47 △최상득17 △허 승50
△홍경선52
◆AIP △곽상욱30 △김상진31
△김성환43 △김승길10 △김정원18
△김종백43 △김종필40 △김지년38
△김학규26 △김해선26 △남귀현3
△맹근식42 △박영욱38 △박영욱15
△박종원27 △박종호9 △박준호43
△성필선36 △신길웅10 △신동석42
△신용기9 △원석동19 △유영완17
△이강원33 △이은택6 △이종택33
△이천우13 △이태화16 △장승민43
△정영계33 △정영희42 △정일근41
△최용의43 △최익선25 △한상규21
△한재욱42 △허영희26 △황종영39
◆ACAD △강성만69 △강연욱68
△곽기현70 △권진호70 △김광수68
△김영광10 △김진태27 △김현수30
△노재우16 △문동신55 △박문희56
△박선만25 △박용암43 △서정도35
△서정만18 △서형교67 △성기태59
△송근호33 △우종전60 △유재면69
△윤대식10 △이관영2 △이교용40

△이근일40 △이덕수44 △이문웅27
△임종국69 △조부영12 △채항석10
△최동화29 △최상철36 △최성룡68
△최수근51
◆ABP △강병호35 △김방수32
△신강수32 △안재성28 △양종하19
△이상래24 △이재구19 △정재철35
△정환수15 △조용호34
◆SGS △권오신5 △김용환16
△김호영2 △배기용4 △손욱래24
△옥병덕24 △황정식2
◆CHCN △예숙은11 △전희숙10
△조순욱10
◆APC △김상규6 △전관석1
△정현종9 △조갑환9
◆HPM △권강주3 △김남수14
△김소형13 △김용돈21 △김종대16
△김주필4 △박춘선25 △안병기23
△엄금량14 △이영태14 △정승혜19
△조용선12 △조용선12 △채상식17
△한희열25
◆AMPP △강학순6 △김희진11
△박범식11 △방석관1 △서영교11
△여상복11 △유병무11 △임성기11
△최영해10 △한희승11
◆AIC △김동구13 △김영식29
△신우근4 △안효원25 △오용운9
△이국세12 △이상인16 △이용우29
△이종대18 △이형동28 △조익현22
△허 인25
◆AFB △김용식7 △박문희9
△신동수9 △신승희9 △이용환7
△허 찬3
◆AMPFRI △김문환27 △김상진6
△김영기27 △김영진26 △박수찬25
△양남열27 △유재만2 △이우규26
△이유인7 △임한택6 △조기조4
△조봉기1 △최동식21
◆ACPM △김길수6 △김태용2
△남관우5 △박흥석6 △윤상담6
△최재영2 △홍주현6
◆FIP △고영수2 △신현민1
△이두형6 △황국현4
◆GLP △강병섭21 △강태현21
△김상현21 △김성훈18 △김창송21
△대원홍16 △류명선21 △박동관20
△박관권21 △양기해14 △유인숙21
△윤상기21 △이성리9 △이승우21
△이중신20 △임종호11 △정연택10
△정진구21 △차기민16 △최성덕21
△홍영표21
◆ALP △김 호11 △김홍주4
△박 찬12 △배권택12 △오명식12
△우동혁11 △이승림11 △임대진5
△정재흠12 △최우영12 △황은연12
◆SPARC △김광진8 △오준서4
△장 웅16 △황 철7
◆AFP △권혁종6 △김준한4
△박문순6 △이수형4
◆ASP △고희재19 △김상길14
△김원일19 △송희상7 △유배근6
△이선재14 △이재원13 △장덕생18
△정형근18 △최석기19 △한기은19

홀커밍데이 협찬 감사합니다

(일금 30만원) △박영구 AIP31
(일금 10만원) △강규범 AMP62
△고호곤 AMP53 △권영인 ASP11
△기만덕 의대77 △김명년 공대53
△김명훈 사대49 △김석연 치대68
△김성호 공대78 △김소선 미대63
△김연식 사대51 △김점동 인문73
△김주일 의대44 △김중웅 법대60
△김지현 의대89 △김정자 SPAR13
△문진수 의대67 △민희식 문리53
△박마리 GLP11 △박원표 법대70
△박정열 상대60 △박종인 공대57

△박현선 음대56 △백낙환 의대44
△변창기 상대54 △서석전 공대57
△서진근 공대53 △신순철 의대62
△안승국 법대76 △오완영 문리59
△유병진 AMP49 △이광노 공대47
△이귀복 AMP5 △이근영 상대55
△이동식 사대72 △이병상 문리61
△이석우 치대71 △이영두 사회73
△이웅희 공대49 △이은진 사대61
△이인자 생활55 △이재연 음대92
△이진수 의대68 △이천수 법대61
△이형직 상대67 △이호영 공대04

△장철식 공대49 △전광우 상대69
△조규일 문리61 △조병식 AMP55
△조충희 공대63 △조태제 공대58
△채병호 약대60 △최계순 行院65
△최안분 공대53 △최용준 사대61
△하우승 의대71 △하태민 사회90
△한지원 사회02 △황병태 상대54
△황은영 법대87 △김포지부동창회
(10월 21일~11월 10일 협찬자)

- 바로 잡습니다 -

지난 11월호(제392호) 5면 홀커
밍데이 협찬자 명단 중 AFP동창회
장 ‘윤동환’을 ‘윤동한’으로 바로
잡습니다.

10 월 계 : 39,800,000원
평 생 회 비 : 52,800,000원
입 회 비 : 440,000원
총 계 : 1,136,830,650원